

7 2024 VOL. 337

haninnewsin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한인뉴스

KOREAN NEWS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BE
THE FIRST
MOVER**



KMK GROUP

The all-new KONA Electric.

사전계약 실시

Rp 500^{Jutaan*} 부터



사전 계약 고객 대상 특별 혜택 :

1
YEAR

Free Charging*

Rp 5 Juta 상당 충전권 증정
(선착순 500명)

*지역별로 상이 할 수 있으며,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판매 및 서비스 문의]

- 현대자동차 콜센터 (0-800-1-878-878), 한국어 서비스 3번 선택 / 한국 교민전담팀 대응
- 자세한 내용은 현대차 홈페이지 (www.hyundai.com/id) 를 참조하세요

[한국인 금융상담]

- Sunindo KB Finance : +62 821-2595-5095 왓츠앱 문의
- 신한은행 : 1500881 또는 카카오톡 '신한인도네시아은행' 채널 검색



 **HYUNDAI**

월간 한인뉴스 7 2024

한인뉴스 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호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 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인뉴스발행인 박재한 배상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발행처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발행인 박재한

편집인 김희년

논설위원 신성철

편집장 홍석영

편집위원 최인실, 이영미, 조은아

표지 편집국

디자이너 Diki Satria Nugraha

인쇄 알림인도

전화 (021) 521-2515, 527-2054

팩스 (021) 526-8444

주소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메일 haninnewsinni@gmail.com

웹사이트 http://www.innekorean.or.id



표지 사진 :
찌까랑 프레지던트대학,
<KOREAN DAY>에서 만난
한바패(사물놀이 동호회)의
무적의 8인조 어벤져스
2024. 6. 7.

6

[신성철 논설위원 칼럼]

한류 열풍을 타고 비상하는

한국 제품·서비스

9

[김재훈의 '세무 TALK']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10

월간 뉴스 브리핑

〈데일리 인도네시아〉

16

[여기가 맛집]

SKINNY DIP 〈황지영〉

19

[디카시 풍경]

능소화 일기 〈김주명〉



contents

2024. 7. 통권 337호

20

[배동선 작가의 술술 읽히는
인도네시아 역사 11]
디포네고로 왕자와 자바전쟁

26

[서상영의 한방칼럼 15]
3대 노인질환
2. 파킨슨 병

30

[자카르타의 아침]
골프 뭐 있어, 한방이지!
〈손상현〉

34

제 74주년 6.25 전쟁 기념식 &
나라 사랑 글짓기 시상식
〈최규식〉

35

JKS 소식

39

제 69회 현충일 추념식 &
북한 인권 개선 촉구 회의

40

팀코리어 합동 방문단, 인니
신수도 참여 방안 모색

42

[행복에세이]
우리가 느끼는 감각
〈고아라〉

44

[반짝이는 그림책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금
〈김별님〉

47

이달의 시사상식

48

[칼럼] 김치의 인도네시아 진출기
〈조연숙〉

50

드라마 속 바이오 기술 VS
현재의 바이오 기술 〈최규식〉

52

[반려동물 랜선집사]
반둥 베이커리의 파티셰
냥이의 묘생이란 〈김소정〉

54

한국-인도네시아 우정의
50년 여정 7 〈신성철〉

58

인도네시아 법 해설(335)
불법행위 〈이승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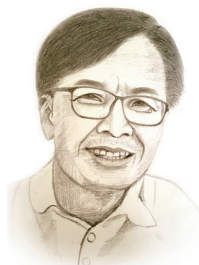
60

7 Bulan, 미토니 의식
〈사공경〉

68

생활정보

한류 열풍을 타고 비상하는 한국 제품 · 서비스



논설위원 신성철

이제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한국 식품을 먹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보고 K-Pop을 들으며 한국 화장품을 사용하고 한국 관광도 즐긴다. 2000년대 초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첫 한국 드라마가 지상파를 탄 이래, 한류 콘텐츠가 20년 이상 인기를 지속하고 있다. 처음에는 한국 드라마를 보고 주인공이 사용한 물건들을 구입하거나 K-Pop 댄스를 따라 하던 일방적인 수용이었으나, 이젠 한류가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삶의 일부가 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2024년 4월 발표한 ‘2024 해외 한류 실태조사’ (2023년 기준)에 따르면, 응답자 57.9%가 한류가 한국 제품 ·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고, 특히 인도네시아가 81.4%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베트남(78.6%), 사우디아라비아(74.5%) 순이다. 한국 문화콘텐츠를 경험한 인도네시아인의 대다수는 한류가 한국 제품 ·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해 K-콘텐츠 소비가 연관 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26개국의 한국 문화콘텐츠 경험자 2만5천명을 대상으로 2023년 11월 10~30일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문체부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K-박람회’를 여는 등, K-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확산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조사에서 한류 경험자의 절반 이상(50.7%)은 ‘향후 한국산 제품 · 서비스를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3.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제품 · 서비스별로는 식품(64.7%)이 가장 높았으며, 한국 방문(61.8%), 음식점에서 식사(61.4%), 화장품(54.0%), 의류 구매(52.8%) 등이 높은 소비 의향을 보였다.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 가장 높은 국가는 인도네시아이다. ‘마음에 든다’ (호감)라고 답한 비율은 인도네시아(86.3%), 인도(84.5%), 태국 · 아랍에미리트(83.0%), 베트남(82.9%) 등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호감도가 높았다.



롯데몰 내부의 상설행사장 KOREA 360

인도네시아 2억8천만 인구 가운데 생산가능인구는 전체 인구의 68%, 평균 연령은 29세로 젊은 인구구조를 갖고 있는 역동적인 소비시장이다. 아울러 소득 증가에 따른 중산층의 증가는 소비시장을 확대하고 있으며, 국내총생산(GDP)에서 민간소비가 55%가량 차지할 만큼 탄탄한 내수시장은 유통 서비스업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을 통해 한국 음식문화를 접한 인도네시아 10~20대의 한식에 대한 반응이 가장 뜨겁다. 팬데믹 기간에 떡볶이로 대표되는 K-분식의 소비가 크게 늘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국 음식으로는 떡볶이와 김밥을 꼽을 수 있다. 떡볶이의 맵고 짜고 단맛은 인도네시아 현지인 입맛에 잘 맞으며, 떡과 유사한 인도네시아 음식(론똥)이 있어 식감에 대한 거부감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술집인 포장마차(포차, pocha)가 현지에서는 떡볶이, 잡채와 불고기 등 현지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파는 간이식당 컨셉으로 확산되고 있다. 주류를 판매하는 포차도 있다. 새로운 한류 문화가 현지에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이 증가하고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전통시장보다는 쇼핑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현대적인 유통 채널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2019년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현대적인 유통 채널 가운데 하이퍼마켓과 미니마켓(편의점)은 확산 추세인 반면, 슈퍼마켓은 축소되고 있다. 2018년에만 헤로 슈퍼마켓이 26개 점포가 문을 닫았고, 미니마켓은 급증하는 추세다. 인도네시아 1위와 2위를 달리는 미니마켓인 인도마켓과 알파마트는 2011년에 매장수가 각각 5,755개와 5,200개였으나, 2017년에 각각 15,335개와 13,400개로 2.5배 이상 증가했다. 이들 편의점에는 라면과 떡볶이 등 한국 식품을 쉽게 볼 수 있다.

롯데마트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대표적인 한국기업이 투자한 유통기업이다. 롯데마트는 2008년 한국 유통 기업 최초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했다. 인도네시아 대형마트 마크로(Makro) 19개점을 인수하며 현지 사업을 확대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 매장 50곳을 운영 중이다. 롯데마트는 인도네시아 유통업계 역시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만큼 10대 도시 대형 점포와 중소 도시 거점 점포를 연결해 전국적인 물류 네트워크로 활용할 방침이다. 앞서 롯데그룹은 2013년 6월 자카르타 메가꾸닝안 지역의 복합단지인 ‘찌뿌트라 월드 자카르타’에 복합쇼핑몰인 ‘롯데쇼핑 예비뉴점’을 오픈했다.

유통산업에서 현지 한인이 운영하는 유통기업과 슈퍼마켓을 빼놓을 수 없다. 이들 유통기업들은 먼 타국에서 한인들의 식생활을 책임져 주었을 뿐만 아니라, 2000년대 후반기부터 시작된 인도네시아 한류 열풍을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1980년대 초반부터 태동하기 시작한 한인 슈퍼마켓은 무궁화를 시작으로 도라지, 뉴서울, 한일마트, K-마트 등이 있으며, 이들 유통회사들은 인도네시아 대도시 식품 유통 점포에 납품하거나 한국인이 근무하는 지방에 있는 회사에 한국 식품을 공급하고 있다.

한류에 깊이가 더해지고 인도네시아인이 함께 즐길 수 있을 만큼 확산하면서 그 영향력도 커졌다. 이제는 지속가능한 쌍방향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자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양국 모두에게 자국의 문화는 소중한 자산일 뿐만 아니라 자국민의 정체성 고양, 외교 및 경제 유발 효과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다. 한국이 한류 문화를 통해 인도네시아와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류를 하며 선한 영향력을 펼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인도네시아 문화와 제품을 소비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이기를 희망한다.



세금계산서 발행 일자

글: 김재훈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송장(Invoice)과 세금계산서(Faktur Pajak) 발행 일자가 동일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는데, 결론적으로는 인보이스 날짜에 관한 세금 규정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단지 국세청장 시행규칙 PER-03/PJ/2022 및 PER-11/PJ/2022를 통해서 세금계산서 날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상기 규정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날짜는 과세 대상 물품(BKP) 및/또는 과세서비스(JKP) 인도시점이나 대금 결제 시점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에 작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세금계산서는 과세 대상 물품 또는 과세 대상 서비스를 인도할 때, 과세대상 물품 또는 과세대상 서비스가 인도 전에 대금을 먼저 수령할 때 작성되기에 실질적으로 송장과 세금계산서는 동일한 날짜가 될 수 있다.

송장(Invoice)은 매매 계약의 조건을 이행했다는 뜻으로 공급자가 공급 받는 자에게 전달하는 서류로서 계산서나 청구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세금계산서(Tax Invoice / Faktur Pajak)는 부가세 과세등록자인 공급자(PKP)가 공급받는 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부가세법 규정에 의해 작성되어야 한다.

송장(Invoice)은 사문서로 회사 상황에 따라 작성되지만, 세금계산서(Tax Invoice / Faktur Pajak)는 공문서로서 부가세법에 규정된 양식으로 발행되어야 한다.

문의 : kimjhoon@bngconsulting.co.kr

2024 년 6월 월간 뉴스 브리핑

제공 : 데일리인도네시아

<경제 비즈니스>

중국, 인도네시아에 대규모 섬유봉제공장 건설 추진

중국 기업이 인도네시아 서부자바 지역에 최대 10만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규모의 의류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루훗 빠자이판 해양투자조정장관의 말을 인용,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루훗 장관은 중국 기업이 서부자바주 수방과 중부자바주 수꼬하르조에 각각 의류 공장을 세울 예정이며, 수방 지역은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 BYD의 공장과 가까운 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루훗 장관은 이 투자가 곧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 공장이 해외 바이어 주문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지 섬유봉제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루훗 장관은 수방 지역은 자동차로 1시간 거리에 꺼르따자띠(Kertajati) 국제공항이 있다며 중국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토지 수용에 대해 농업공간기획부 장관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며, 다음달까지 인허가 등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다.

인도네시아 섬유봉제업계는 최근 해외 바이어들의 주문 감소로 생존을 위해 애쓰고 있다.

지난해 업계 관계자들은 수출 감소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 인도네시아도 많은 국가와 마찬가

지로 새로운 시장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현재 어려운 상황을 전했다.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서구 시장이 경기 침체를 겪음에 따라 많은 수출국들이 대체 시장으로 인도네시아를 주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경제 일간지 비즈니스(Bisnis)의 지난 6월 중순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섬유협회(API)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기간에 20~30개의 공장이 운영을 중단함에 따라 10,800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고, 지난해에는 7,200명이 정리해고 됐다.

이와는 별도로 일간 콤파스(Kompas)가 노동조합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1만3천명 이상이 해고됐고, 이 중 1만 명 가량이 고용했던 회사에서 해고수당을 받았다.

루훗 장관은 경제성장률을 연간 6.5~7%로 끌어올리려면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수출지향 제조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수출지향 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자국의 섬유봉제산업의 성장 둔화 원인을 주요 생산국의 덤핑 행위로 보고, 반덤핑 정책과 수입 보호 조치 등 과도한 선적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관련 부처에 촉구했다.

인도네시아 전기차 판매량 증가세

인도네시아의 전기차(EV) 판매량이 올해 1월부터 5개월 동안 전년 동기 대비 109%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량이 감소하는 추세와 대조된다.

인도네시아자동차제조협회(Gaikindo)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기차 도매 판매량은 9,729대로 작년 같은 기간의 4,640대와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

용끼 수기아르도 Gaikindo 회장은 전기차 판매의 긍정적인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정부와 업계가 주도적으로 충전소를 늘리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는 2030년까지 전기 승용차 200만 대와 전기 오토바이 1,300만 대를 운행하는 것을 목표로한다.

지난해 발표된 AC Ventures 보고서는 인도네시아 전기차 시장 성장률(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은 연평균 58.5%로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인도네시아 전기차 시

장 규모가 2030년에는 2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초부터 5개월 간 가장 인기 있는 전기차 모델은 중국 자동차 제조사 울링(Wuling)이 생산한 전기차로 5,468대가 판매되어 지난해 같은 기간의 1,444대와 비교해 278% 증가했다.

반면, 현대차의 판매량은 같은 기간 동안 2,674대에서 526대로 감소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까라왕에 건설된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가동을 시작함에 따라 현지 생산 모델이 강화되어서 올해 반등할 것으로 기대했다.

Gaikindo 자료에 따르면, 내연기관 차량 판매는 올해 1월부터 5개월 동안 전년 대비 21% 감소한 334,969대를 기록했다.

리즈완 알람샤 Gaikindo 공동 회장은 올해 자동차 판매 목표 110만 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5%의 경제 성장률이 가계 소비를 지지해 자동차 산업의 판매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니 정부, 이슬람단체 NU에 석탄광업권 부여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내 회원수 기준으로 최대 이슬람단체인 나들라똘올라마(NU)에 석탄 광업권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30일 종교단체가 광산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에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승인했고, 동부칼리만탄 지역의 석탄 광업권을 NU에 부여할 것이라고 지난 6일 바흐릴 라하달리아 투자장관이 말했다.

바흐릴 장관은 이어 허가가 승인되면 종교단체의 광업권에 대한 세부사항이 공개될 것이라고 하며, 할당할 광구는 이전에 석탄광산회사 Kaltim Prima

Coal(PT KPC)의 기존 광업권의 일부라고 말했다. KPC의 광산 면적은 2022년 신규 허가를 받으면서 약 29,000ha로 줄었다. KPC는 인도네시아 최대 석탄광산회사 부미리소시스(Bumi Resources)의 자회사이다.

바흐릴 장관은 “이번 조치는 종교단체에 대한 국가의 기부이며, 다른 종교단체에도 유사한 자산을 제공할 것” 이라면서 “이러한 조치는 정치와는 관련이 없다” 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NU는 즉각 논평을 하지 않았다. 2위 이슬람단체인 무함마디야 관계자는 “광산 경영

이 단체, 지역사회, 국가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 이라고 말했다. 비평가들은 정치적 지지에 대한 종교단체에 대한 보상이라고 지적했다.

광산연구원 Reforminer Institute 꼬마이디 노또느고로 연구원은 “광산 사업은 대규모 자본, 높은 수준의 기술,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지만 관련 사업의 경험이 없는 단체는 이를 경영하기가 쉽지 않다” 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바탐 항나딤 국제공항의 제2터미널

건설 공사가 지난 5월 30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새로운 터미널은 공항의 수용 능력을 크게 확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터미널의 면적은 5만m² 에 달하며, 1단계 건설을 위한 총 투자비용은 약 2조 4천억 루피아(약 1억 6천만 달러)로 예상된다.

전체 항나딤 국제공항 건설 프로젝트는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총 투자액은 6조 루피아(약 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추가 계획에는 최대 10대의 항공기를 더 수용할 수 있는 항공기 플랫폼과 공항 계류장의 신축도 포함된다.

연간 960만 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 제2터미널 건설은 앙까사뿌라 I(PT Angkasa Pura I), 인천국제공항공사(IIAC), 위자야 까리아(PT Wijaya Karya)로 구성된 컨소시엄인 바탐 국제공항(PT Bandara Internasional Batam, BIB)이 맡고 있다.

바탐 항나딤 공항 제2터미널은 공항의 수용력을 늘려 더 많은 관광객과 투자자를 바탐으로 유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프로젝트는 바탐 지역의 경제 성장과 인프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 주민과 기업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 사회>

“인도네시아인이 사우디 성지순례 가려면 해외에서 기회 더 좋아”

수백만 명의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이 사우디아라비아로 성지순례(Haji, 이하 하지)를 가기 위해 수십 년을 기다린다. 그러다보니 인도네시아 대신 다른 나라 쿼터를 이용해 하지를 수행하는 인도네시아인도 적지 않다.

족자카르타에 있는 국립 가자마다대학교(UGM)

한국문화학과의 수라이 아궁 누그로호 교수는 한국에 취업해서 오는 인도네시아인들의 희망사항 중 하나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한국 쿼터로 성지순례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Haji)는 재정적 여유가 있는 건강한 신체를 가진 모든 무슬림이 일생에 한 번 이상 의무적으

로 수행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성지순례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하지 순례자 수가 2023년에 180만 명에서 올해 24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사우디 당국은 각국의 무슬림 인구 수를 고려해 하지 쿼터를 배정하며, 인도네시아는 하지를 가려는 사람이 쿼터보다 많아서 대기시간이 길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무슬림이 많은 국가로, 사우디로부터 순례자 쿼터를 매년 20만 명 이상 꾸준히 받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 자료에 따르면 종교부에 등록한 하지 희망자는 530만 명이 넘는다.

하지만 영국이나 한국처럼 하지 쿼터보다 가려는 사람이 적어서 자리가 남으면, 외국인이 현지 거주 허가를 증명하고 거주국 쿼터를 쓸 수 있다.

영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전에는 하지 쿼터 25,000명을 받았고, 2023년에는 3,600명을 받았다.

자카르타 출신인 띠엔 물안티와 그녀의 남편은 지난해 영국에서 하지를 신청해서 대기 없이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인도네시아 장애인재단의 CEO인 띠엔은 장애를 가진 46세 여성으로, 2022년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 그녀는 출국하기에 앞서 하지를 위한 저축계좌를 개설했다.

띠엔은 스코틀랜드에 도착해서 친구로부터 하지 대기 시간이 짧다는 소식을 듣고 신청했다. 띠엔은 “인도네시아와 달리 영국은 쿼터가 찰 때까지 선착순으로 등록을 받았다”고 말했다.

띠엔은 사우디가 유럽, 호주, 미국 출신 순례자들을 위해 출시한 플랫폼인 누숙(Nusuk)을 통해 등록한 뒤 올해 하지(Haji)를 수행할 수 있었다. 누숙에 순례자 신청을 하고, 요구하는 서류를 정해진 기한 안에 제출하면, 누숙에 등록한 다양한 여행사가 제공하는 하지 상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모두 누숙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다.

띠엔은 자신은 가장 저렴한 6,800파운드짜리 하지 상품을 선택했는데, 자신이 받은 서비스가 만

족스러웠다고 말했다. 띠엔에 따르면, 유럽인 캠프의 호텔 복도에 있는 냉장고에는 각종 음료수와 아이스크림이 있었고, 선반에는 스낵이 넘쳐났다. 하지 요원들은 조심스럽게 휠체어를 다뤘고, 모든 버스에 경사로가 있는지 확인했으며, 띠엔을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호텔방에 배치했다.

반면 그녀가 사우디에서 만난 인도네시아 캠프 이용자들은 음료와 스낵을 제공받지 못했고 개별적으로 사서 먹어야 했고 서비스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고 상황을 전했다.

띠엔은 인도네시아 하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선착순으로 하지 신청자를 받는 영국과 달리, 인도네시아는 신청 때부터 일반, 특별, 독점 등 세 가지 트랙을 선택하게 한다. 세 가지 트랙은 대기시간과 비용이 각각 다르며, 가장 비싼 독점 트랙의 경우 사기 사건도 종종 일어난다.

2023년 기준으로 일반 트랙은 비용이 4,000만~5,000만 루피아 사이로 가장 저렴하지만 대기시간이 길고 표준서비스를 제공한다. Tempo.co에 따르면 일반 트랙의 대기 시간은 최대 30년이다.

특별 트랙은 비용이 1억1,900만 루피아 수준이고, 일반 트랙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기기간은 5~9년이다. 일반 트랙과 특별 트랙은 모두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급한 비자로 출발한다. 독점 트랙은 후로다 하지(Furoda Haji)라고 부르며,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특별 초대 비자인 무자말라 비자(Mujamalah visa)를 가지고 출발하므로 대기시간이 없고, 비용은 2억3,100만 루피아 수준이며, 고급 숙박시설과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인도네시아 종교부에 등록된 여행사가 운영하지만, 종종 사기 행각도 벌어지고 있다.

2024년 6월 초에 남부술라웨시주 마카사르 출신 순례 희망자 37명이 가짜 하지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하려다 적발돼 사우디 당국에 구금됐다. 이들 중 34명은 인도네시아로 돌아갔고, 불법 계획의 주모자로 여겨지는 3명은 현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자카르타 대성당, 희생절에 이스티크랄 사원에 소 한 마리 기부

자카르타 대성당이 이슬람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이드라드하(희생절)를 앞두고 인근에 있는 이스티크랄 대사원에 희생절에 쓸 소 한 마리를 기증했다. 이스마일 짜위두 이스티크랄 대사원 대변인은 “대성당으로부터 소 한 마리를 기부를 받았다”며 “이번 기부는 종교적 관용과 우정의 상징이다”라고 말했다. 대성당은 또한 무슬림들이 희생절인 6월 17일 아침에 열리는 기도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성당 주차장을 개방했다. 이와 관련, 이스마일은 “이는 오랫동안 시행되어 온 호혜정책이다.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이스티크

랄 대사원 역시 대성당 신도들을 위해 주차장을 개방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희생절에 약 25만명의 무슬림이 대규모 기도회를 펼칠 것으로 추산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슬람 신자를 보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 시내 중심에 있는 자카르타 대성당은 자카르타 대교구의 주교좌 성당이다. 자카르타 대성당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이슬람 사원인 이스티크랄 대사원과 서로 나란히 마주보고 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의 종교적 관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프라보워 당선인, 절친 요르단 국왕과 팔레스타인 문제 논의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6월 11일 절친한 친구로 알려진 요르단 압둘라 2세 국왕을 만나 가자지구에서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팔레스타인 희생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양국 관계 증진에 대해 관해 논의했다. 요르단 사해에서 열린 ‘가자지구 긴급 인도적 대응 회의’에 참석차 현지를 방문 중인 프라보워 국방장관은 오랜 친구인 압둘라 2세 국왕을 만나, 요르단은 팔레스타인을 지원하려는 노력에 있어서 인도네시아의 좋은 동반자라고 말했다. 이날 프라보워 당선인은 압둘라 2세 국왕에게 “인도네시아 정부는 악화하고 있는 가자 지구의 상황을 계속해서 감시하고 있다”며 “인도네시아는 극도로 취약한 가자지구 주민들의 현재 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라보워 당선인은 인도네시아 1998년 사태 직후 요르단으로 건너가 장기간 거주하면서 압둘라

2세 국왕 등 요르단 정관계 인사들과 교분을 쌓았다. 앞서 압둘라 2세 국왕은 지난 3월 인도네시아 대선 개표결과가 발표되자, 전화로 프라보워의 대선 승리를 축하할 만큼 가까운 관계이다. 그는 프라보워를 “나의 형제”라고 부르며 “인도네시아는 당신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프라보워도 “나는 암만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고 화답했다. 앞서 프라보워 장관은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나 가자지구 난민 아동 1천명을 인도네시아 이슬람기숙학교에 보내자는 코피파 인다르 파라완사 전 동부자바 주지사의 제안을 환영한다며 조코 위도도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무슬림이 인구의 절대다수인 인도네시아는 오래전부터 이슬람 형제국인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지지하며 이스라엘과는 외교 관계도 맺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당들, 지방선거 태세 돌입



인도네시아 정당들이 지난 2월 대선과 총선을 마치고, 이제는 오는 11월 27일 주지사 37명, 군수 451명, 시장 93명을 선출하는 지방선거 태세에 돌입했다고 10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은 8월 19일까지 총선거관리위원회(KPU)에 후보등록을 해야 한다. 이에 주요 정당과 정치인들이 후보 선정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가장 주목을 받는 후보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차남인 까에상 빵아랍 인도네시아연대당(PSI) 대표이다. 외식업을 하는 까에상은 310만 명의 엑스(X·옛 트위터) 팔로워를 거느린 인플루언서이자 솔로시 축구팀 퍼르시스 솔로 구단주이기도 하다. 최근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지방선거법에서 주지사와 부지사의 최소 연령을 30세로 제한한 것과 관련 연령 기준 시점을 출마 시기가 아닌 취임일로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연령 제한 기준 시점이 바뀌에 따라 조코위 대통령의 차남인 까에상이 주지사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그는 1994년 12월 25일생으로 올해 생일에 만 30세가 된다. 이번 지방선거가 11월 27일이기 때문에 기존 규정 만 30세 이상 기준을 적용하면 주지사에 출마할 수 없다. 11월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는 2025년 초에 취임한다.

까에상은 당초 자카르타 인근 위성도시 테폭시 시장에 출마할 것이란 이야기가 많았다. 지방선거법상 시장 연령 제한은 25세 이상이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까에상이 자카르타 주지사에 출마하면, 아버지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그의 친형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의 뒤를 잇게 된다.

조코위는 2012년 자카르타 주지사를 거쳐 2014년 대통령에 당선됐고, 기브란은 수라카르타 시장을 거쳐 2024년에 부통령에 당선됐다.

두 번째로 주목받는 후보는 지난 2월 대선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후보에게 패한 아니스 바스웨단이다. 아니스는 대선 당시 자카르타에서 상당한 득표를 해서 유력한 자카르타 주지사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

지난 2월 총선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투쟁민주당(PDIP)은 차기 정부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대신 가능한 한 많은 지방자치단체장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투쟁민주당은 지방선거 후보로 바수키 짜하야 뿌르나마(일명 아혹) 전 자카르타 주지사, 트리 리스마하리니 전 수라바야 시장, 안디카 빠르까사 전 인도네시아군(TNI) 사령관 등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한편 조코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PDIP는 조코위의 사위인 보비 나수티온이 북부수마트라 주지사에 출마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보비는 PDIP의 지지를 받아 메단시장이 됐으나, 지난 2월 대선에서 PDIP 후보인 간자르 프라노워 대신 프라보워 후보를 지지해서 PDIP 당원 자격을 잃었다.

데일리
인도네시아

—여기가 맛집!—

Skinny Dip (Chillax)

황지영 (자카르타 거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7월을 맞이했네요. 한국은 곧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될 것 같은데요. 장마가 오기 위해 무더위질 7월이지만 창문 사이로 느껴지는 푸릇푸릇한 풀 내음이 참 아름다운 여름입니다. 한국은 습하고 찝통 날씨에 불쾌지수 높고 불편한 7월이 기다리고 있지만, 자카르타는 제가 n년차 거주해 본 결과 7월이 가장 선선하고 시원한 바람도 불고 가장 상쾌한 날씨 같은데요. 오히려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훨씬 시원하고 습하지 않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없어 놓치기 아까운 7월에 산책하시며 힐링도 하실 수 있는 Chillax 라는 단지 안에 있는 식당을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자카르타는 걸어서 산책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하지만 Sudirman 쪽에 위치한 Chillax라는 단지는 다릅니다. 바로 앞에 인도가 있어서 빌딩 숲 사이를 걸어 산책하기도 좋습니다. 꽤나 핫플 이라 주말에 사람들로 북적이지만 주차시설이 잘 돼있는 편이라 주차하시고 식사하시고 산책하셔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주말에는 공연도 하고 플리마켓도 자주 열리더라고요. 주말에 가시면 사람들이 많은 대신, 즐길 거리도 좀 더 풍부할 거예요.



‘Skinny Dip’이라는 식당은 눈에 띄게 특별한 인테리어는 없지만 인니에서 자주 보는 분위기 좋고 깔끔하고 fancy한 인도네시아 양식당 느낌입니다. 생맥주도 판매하기 때문에 분위기도 좋아서 2차로 오시기에도 아주 적합한 곳입니다. 그에 걸맞는 lite bite (안주)들도 많은데요. 식사하셔도 괜찮고, 2차로 술 한 잔하기에도 괜찮은 식당인 것 같습니다. GFC 그룹의 식당이기 때문에 맛 또한 보장되어 있는데요. 그럼 바로 요리 소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 소개 드릴 요리는 Salade Lyonnaise (89,000 루피아 ++)입니다. 요즘 혈당 스파이크를 막기 위해 식전에 야채를 꼭 먹여주는 편인데요. 식전에 야채를 2~3조각만 먹어도 다이어트 보조제를 먹고 식사하는 것처럼 혈당을 확 낮춰주는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채소에 함유된 식이섬유가 장에 벽을 만들어 당의 흡수를 억제하기 때문에 혈당이 원만하게 상승하도록 돕는 원리인데요. 그래서 저는 요즘 식전에 꼭 야채를 조금이라도 먹여두는 식습관을 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도 추천드려요. 이 샐러드는 각종 어린잎 채소들, 수란, 오렌지가 들어간 치킨 샐러드인데요. 드레싱은 허니 머스타드였습니다. 오렌지가 들어있어서 상큼하니 식전에 입맛 돋우는데도 아주 좋았습니다. 식전 샐러드로 혈당 스파이크 막는 것 잊지 마세요!

두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요리는 The Real Carbonara (109,000 루피아 ++)입니다. 까르보나라 파스타인데요. 약간의 미트소스 (소, 양, 치킨 중 선택 가능), 소고기 베이컨과 느타리 버섯이 토핑으로 올라간 파스타입니다. 우리가 자주보는 크림하고 꾸덕꾸덕한 느낌은 아니라 신기했는데요. 평소 느끼한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도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짭조름한 하고 고소한 소고기 베이컨과 느타리 버섯 향이 아주 일품인 파스타이었는데요. 바삭하게 구운 치즈 토핑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느끼함보다는 고소함이 주된 까르보나라 였습니다. 담백하게 즐기실 수 있는 까르보나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요리는 Crab Salmon Omelette (119,000루피아 ++)입니다. 게살과 연어가 들어간 오믈렛인데요. 풍실풍실한 계란 오믈렛 안에 고소하고 달달한 게살과 연어가 아주 잘 어우러집니다. 소스는 크림한 삼피농 소스였는데요. 삼피농소스란 송이버섯과 크림으로 만든 소스인데, 더 쉽게 묘사하자면 양송이 소스 수프를 더 꾸덕꾸덕하게 소스로 만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스가 오믈렛과 기가 막히게 잘 어울렸어요. 이 요리에도 작게 샐러드가 제공되니 혹시 샐러드를 따로 시키기에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 요리를 먼저 시키시고, 샐러드를 드셔서 혈당 스파이크 예방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요리는 Skinny Dip Shakshouka (89,000루피아 ++)입니다. 혹시 삭슈카나 에그 인 헬’ 을 아시나요? 지중해 및 중동 국가에서 자주 먹는 스튜류의 음식인데요. 토마토소스에 각종 야채, 향신료를 첨가하여 데친 계란을 넣는 팬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간단한 요리입니다. 북아프리카에서 유래한 요리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원래는 고기를 첨가하여 먹었지만 북아프리카 유대인들이 고기를 달걀로 바꾸면서 오늘날의 삭슈카가 되었고, 북아프리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이주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에서도 큰 인기를 끌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오늘날에는 영어권 국가에서도 ‘에그 인 헬’ 이라고 부르며 즐겨먹는 요리가 되었는데요. 주로 빵이나 지중해식 콩 샐러드, 잘게 썬 양고기 등을 곁들여 브런치나 점심 식사, 저녁식사로도 먹는다고 합니다. 이 식당에서는 마늘빵과 같이 제공되기 때문에 소스에 찍어서 함께 곁들여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원래 삭슈카는 향신료 맛이 아주 강해서 호 불호가 좀 갈리기도 하는데 이 식당은 생각보다 그렇게 센 향신료는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향신료에 부담감이 있으신 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인도네시아에 살면서 자주 겪기 힘든 시원한 바람과 날씨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힐링의 시간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에어컨 바람만 쐬기보다는 자연에서 시원한 바람을 느껴보는 것이 상쾌하고 건강한 기운을 가져다줄 거예요. 힘차게 발걸음 내디뎠던 2024년도 어느덧 6개월밖에 남지 않았네요. 계획했던 꿈과 희망 그리고 목표 모두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8월에 더 맛있는 맛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식당 정보 : <Skinny Dip - Chillax>

음식 종류 : 양식

가격대 : Rp 300,000-500,000 / 2인 기준

영업시간 : 월~일 오전 11:00- 오후 10:00

주소 : Jl. Jend. Sudirman Kav. 23
Ground Floor Unit G-02 & 03,
Sudirman, Karet Kuningan,
12920 인도네시아

※ Google 참고



능소화 일기



능소화가 좋은 건
오래, 아주 오래
기다리는 사랑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랑법을 쉬 알진데
혈육 같은 꽃
꼭 껴안고서 몽우리째 툭, 툭
잔털 무성한 가슴팍을 속절없이 파고들 때면
그제야 난
능소화, 그녀를 꼭
안을 수 있으니

이미지: 인흥마을의 능소화 by 문희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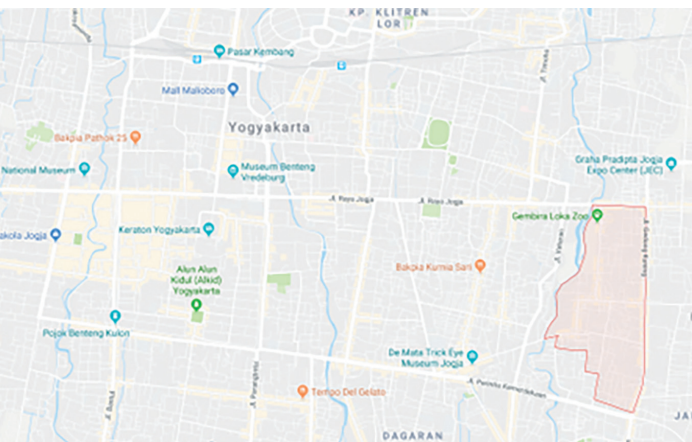
글: 김주명



디포네고로 왕자와 자바전쟁

지난 호에 이어

“재상! 이젠 도성의 땅까지 저자들에게 팔아치울 거요? 레조위낭운은 끄라톤의 지척이오! 뜨갈레조도 내놓을 생각이오? 그러다가 끄라톤 마저도 저자들에게 내놓을 것 아니오?”



족자 끄라톤에 인접한 레조위낭운

디포네고로는 그날 행사에 참석해 있던 지방총독과 네덜란드 군인들을 가리키며 그렇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네덜란드군 앞에서 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이제 디포네고로 왕자 한 명뿐이었고 그의

그런 행동을 보면서 귀족들과 백성들은 문득 하명꾸부위노 2세를 떠올리며 한편으로는 속이 후련해짐을 느꼈습니다. 유배당한 노술탄은 재위시절 네덜란드군과 영국군들에게 깨지고 망가지면서도 끝내 고개를 꺾이지 않았죠.

“왕자 전하! 부디 용서를!”

다누레조는 굴종하는 모습으로 급히 무릎을 꿇으며 그 상황을 모면하는 순발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에겐 예전 처음 모조꺼르토에서 족자에 왔을 때의 순수함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그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더 많은 땅을 네덜란드 사업가들에게 내주며 디포네고로와 충돌을 빚었지만 그에겐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가 그의 뒤를 봐주고 있었으므로 디포네고로 왕자라 할지라도 자기를 쉽사리 실각시킬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거죠. 사실 디포네고로 왕자로서도 왕국을 원만히 경영하기 위해서는 네덜란드가 총애하는 다누레조 재상을 파직시켜 네덜란드의 심기를 굳이 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척의 브레더부르크 요새에서 또 다시 화포를 쏘아댈 빌미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날 족자 끄라톤에서의 가르벡 샤왈 행사(르바란 축제)
<http://yogyakarta.panduanwisata.id/daerah-istimewa-yogyakarta/grebeg-syawal-tradisi-yang-tidak-hilang-dimakan-waktu/>
<https://www.senayanpost.com/keraton-yogyakarta-gelar-garebeg-sawal/>
<https://www.indonesia-tourism.com/forum/showthread.php?44151-Sekatenan-amp-Grebeg-Maulud-di-Sol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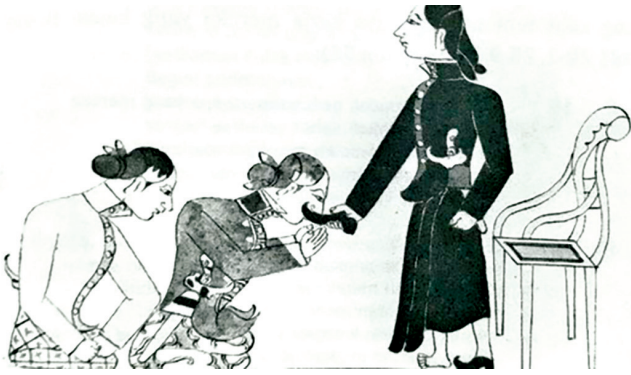
그러나 1822년에 더욱 심각한 충돌이 벌어집니다. 디포네고로 왕자는 하명꾸부위노 3세 생전에 왕국의 깊은 산간 및 오지 촌락의 관리관 지정과 그들의 임무에 대한 법령을 제정한 바 있었는데 다누레조 4세는 이를 무시하고 술탄의 동의도 없이 50명의 오지 관리관을 임의로 임명했고 그들의 급료를 충당하려고 징세관과 아전들까지 동원해 백성들을 무리하게 쥐어 짜 세금을 거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에 격노한 디포네고로 왕자는 어린 술탄을 대신해 문무백관이 모인 자리에서 다누레조 4세에게 이 문제를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모든 혐의를 부인하던 재상은 결국 왕자 앞에 무릎을 꿇고 조아리며 잘못을 실토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너무나 자주 보아왔던 장면이었으므로 더욱 격분한 디포네고로 왕자는 마침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네가 술탄과 신을 능멸했으니 오늘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1811년 그랬던 것처럼 시티항길 대전에서 다누

레조 재상의 목이 날아가는 사건이 또 다시 벌어질 판이었습니다. 칼을 뽑아들려는 디포네고로 왕자를 신하들이 극구 만류했고 왕좌에 앉은 하명꾸부위노 4세조차 아연실색했으므로 그는 칼 대신, 신고 있던 가죽신을 벗어 재상의 뺨을 몇 차례 갈기고 말았습니다. 재상은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맞으면서 연신 용서를 구했지만 그건 결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디포네고로 왕자에게 매번, 끊임없이 공개적인 모욕을 당해 왔다고 생각했고 그 모욕감은 마음 속 깊은 원한이 되어, 언젠가 시골에서 도성으로 자신을 불러 재상으로 발탁했던 디포네고로에 대한 고마움을 완전히 잊고 이제 반드시 수모를 되갚아 주겠다고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디포네고로가 끄라톤에 들어서는 것을 네덜란드군이 철통같이 막아섰으므로 술탄을 만날 기회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다누레조가 오직 네덜란드의 눈치만 보며 국사를 자기 마음대로 운영하면서 왕국의 중대한 이권들이 속속 네덜란드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가족신을 벗어 다누레조 4세의 뺨을갈기는 디포
네고로 왕자
(피터 캐리 교수의 저서 '운명: 디포네고로 왕자의
일생'(Takdir: Riiwayat Pangeran Diponegoro)의
표지그림)

출 처 - <https://nasional.kompas.com/read/2016/09/19/07320231/diponegoro.tampar.patih.yogya.dan.korupsi.pejabat.kita>

디포네고로 왕자는 그날 다누레조를 파직시키지 못한 것을 크게 후회했습니다. 그는 뜨갈레조로 돌아가면 그만이지만 꼬라톤 궁전 안에서 네덜란드군들과 다누레조 재상에게 둘러 쌓여 있는 하명꾸부위노 4세는 이제 누구도 지켜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그로부터 1년 반쯤 지난 1823년 12월 6일에 벌어졌습니다. 하명꾸부위노 4세는 당시 누가 보아도 의욕 잃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국에서 가장 고귀한 사람이었지만 부모를 여윈 후 가장 의지하던 이복형 디포네고로 왕자와도 단절된 후 하루에 열 마디도 하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다누레조 재상은 어린 술тан에게 거의 매년 새로운 왕후나 후궁과 혼례를 주선했습니다. 어린 술탄이 젊은 혈기를 주지육림 속에서 소비하며 정사에는 되도록 관심갖지 말아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19세에 이르렀을 때 술탄은 아홉 명의 처를 두었는데 디포네고로와 만나지 못하게 된 후 혼례의 빈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여덟 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그 중 3분의 1정도가 어릴 때 사망했습니다. 즉 왕실은 매년 혼례뿐 아니라 상도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그는 여러 번 디포네고로에게 인편으로 서한을 보내기도 했지만 그것이 정말 뜨갈레조의 형님에게 도달했는지 알 수 없었고 단 한번도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열아홉살의 나이에 세상과의 단절을 느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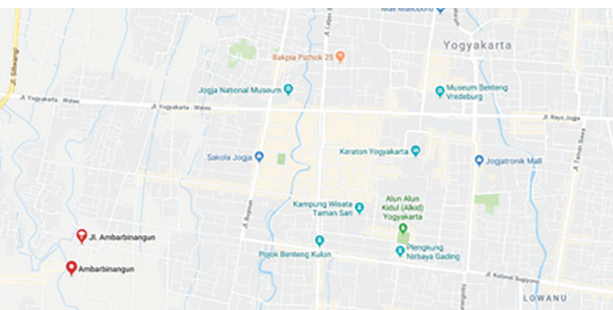
“전하, 꼬라톤 생활이 무료하시면 모처럼 선선한 날씨온데 바깥바람을 좀 쐬시지요.”

어쩐 일인지 다누레조 재상이 그날 아침 일찍 도성 외곽 소풍을 제안했습니다. 술탄은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마침 꼬라톤 궁전 안의 모든 것에 숨이 막힐 듯하던 차였으니까요. 물론 마차 두 대와 시종, 하녀들 수백 명씩을 거느리고 길을 나서는 것이 얼마나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인지엔 생각이 미치지 않았습니다. 왕실과 귀족들에게 그런 것은 그저 당연히 누리는 권리였으니까요. 그래서 수백 미터씩 늘어진 왕실의 행차가 장관을 이루었고 인근 백성들은 그 행차 앞에 하던 일을 멈추고 무릎을 꿇어 경의를 표해야 했습니다. 그 행차의 앞 뒤를 소규모 꼬라톤 경비대가 호위했고 멀찍이 뒤편에선 브레더부르크 요새에서 출발한 네덜란드 기병대가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명색은 술탄의 경호였지만 요주의 인사들과의 접촉을 예방하는 감시의 기능도 있었죠. 그들이 도착한 꼬라톤 서남쪽 암바르위낭운(Ambarwinangun) 지역의 울창한 숲 앞에 펼쳐진 초지에서 술탄은 조금 마음이 풀어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재상, 여기 뽕상그라한(Pesanggrahan)을 짓는다면 어떨 것 같소? 참으로 쾌적하지 않소?”

“높은 안목이십니다.”

뽕상그라한이란 꼬라톤의 외국이나 중요한 손님, 사절들을 위한 초대소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왕가의 숙박시설을 말합니다. 하명꾸부위노1세와 2세 시대에 여러 개의 뽕상그라한이 건설되었는데



암바르위낭운



왕실 행차 모습(현대)

출처: <http://www.tribunnews.com/regional/2017/10/17/jamasan-kereta-keraton-yogyakarta>
<https://blog.plunq.id/cerita-kereta-kuda/>

끄라톤 궁전 바로 남쪽에 지금도 남아있는 따만사리(Taman Sari)가 그 대표적인 곳이죠.

술탄 일행은 거기서 얼마간 시간을 보낸 후 오후 3시경 마지막으로 간단한 다과를 즐긴 후 환궁하기 위해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마차에 오르려던 술탄의 몸이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아아악!”

하명꾸부위노 4세가 비명을 지르며 무너지듯 쓰러졌고 놀란 시종들이 달려들어 부축하려 했지만 술탄을 격렬한 경련을 일으키며 숨이 넘어갈 듯 고통에 찬 비명을 연거푸 질렀습니다.

“전하! 왜 그러십니까? 어디가 아프십니까?”

“술탄 전하를 어서 눕혀라! 어의는 어디 있느냐?”

암바르위낭운은 발각 뒤집혔고 재상과 어의, 신료들은 물론 경비대장과 네덜란드 기병대장까지 술탄의 주변엔 몰려들었으나 그들은 술탄을 구할 재간이 없었습니다. 삼시간 새파랗게 질린 채 몸이 무섭게 부어오른 술탄은 간헐적으로 단발마 같은 비명을 지르더니 마침내 숨이 끊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의 나이 불과 19세였고 역사에는 소풍을 다녀오던 길에 급사한 것으로 기록되었지만 술탄이 독살당했다는 소문이 도성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아직 술탄의 죽음이 공식적으로 공표되지 않았는데도 그 충격적인 소식이 뜨갈레조에 닿았습니다.



따만사리 (<http://www.hargatiketmasuk.info/yogyakarta/harga-tiket-masuk-taman-sari-yogyakarta/>)

아직 해가 지기도 전, 디포네고로 왕자가 일행들을 이끌고 급히 끄라톤 궁전으로 달려왔습니다. 그 기세가 심상치 않았으므로 끄라톤 경비대도, 네덜란드 군인들도 끄라톤에 달려 들어가는 그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신료들과 시종들이 가득한 앞마당을 지나 들어간 술탄의 침전엔 형체를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부풀어 오른 하명꾸부위노 4세의 새파란 시신이 누워 있었고 그곳에 왕후와 후궁들, 그리고 재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던 동생의 참혹한 시신 앞에 디포네고로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 속에서도 뭔가가 큰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끄라톤을 중심으로 왕국이 다시 일어설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동생이 끄라톤의 구중궁궐 안에 고립되어 있는데도 그건 어쩔 수 없이 술탄이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근거없는 믿음은 결국 어린 술탄이 저렇게 고통스러운 죽음을 홀로

감당해야하는 잔인한 결과를 낳고 만 것입니다. 디포네고로 왕자는 동생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눈물을 뿌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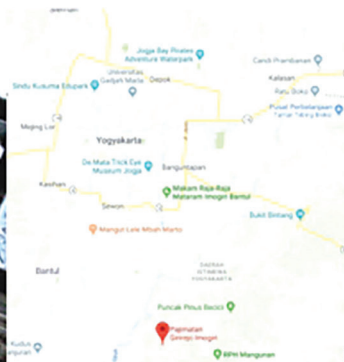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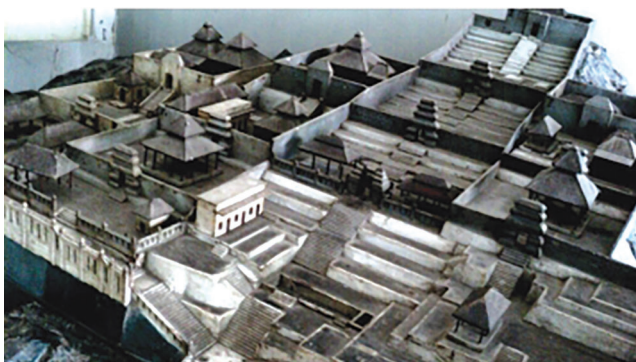
하명꾸부위노 4세는 ‘시누훈 자룻, 스다 버시아르(Sinuhun Jarot, Seda Besiyar)’라는 시호를 받고 마타람 왕국 술탄들의 영원한 쉼터인 이모기리(Imogiri)의 빠지마탄(Pajimatan)에 묻혔으며 그의 묘역은 아스타나 버시아란(Astana Besiyaran)이라 불렸습니다.

누구나 독살을 의심했지만 그의 죽음은 공식적으로는 미스터리로 남습니다. 독살 가능성을 처음 제기한 사람이 다누레조 4세 재상이라는 것은 의외의 일입니다. 그는 디포네고로 왕자가 왕위를 찬탈할 목적으로 모종의 방법을 통해 술탄을 독살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물론 디포네고로 왕자 역시 술탄이 급사한 사건 뒤에 다누레조 재상이 중대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하명꾸부위노 4세는 시종이 가져다준 음식을 먹은 후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은 끄라톤에서 공개적으로 격돌했고 다누레조 재상은 예전과 달리 한 마디도 지지 않고 끝까지 바둑바둑 디포네고로 왕자의 혐의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주장일 뿐, 어떤 물증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관료들과 네덜란드 총독부가 두 사람

모두의 혐의를 각하하면서 술탄의 죽음은 영구미제로 남게 되었지만 그렇게 물증이 없는 사건인데도 그날 암바르위낭운에 동행하여 음식을 바친 시종들과 그 음식을 궁에서부터 준비해간 수라청 궁인들이 때죽음을 당했음은 두 말할 나위 없습니다.

후세들은 이 사건이 다누레조 재상이 기획한 독살사건이라는 쪽에 무게를 두는데 이 사건의 결과로서 다누레조 재상이 궁을 장악하고 디포네고로 왕자는 완전히 밀려나게 되는 쪽으로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명꾸부위노 4세가 정말 독살당한 것이 맞다면 그 직접적인 이유는 무엇이였을까요? 빠꾸알람 1세와 끈쫘노 왕후, 다누레조 재상, 그리고 영국과 네덜란드 등 이민족들에게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술탄국의 국왕이라는 것이 한날 꼭두각시 놀음에 지나지 않고 자신이 왕좌에 앉아 있는 한 그 운명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침내 깨닫고 만 열아홉 살의 술탄을 왜 그토록 표시하는 방법으로 급히 살해하지 않으면 안되었을까요? 자신의 왕자들이 아직 너무 어려 그들에게 양위조차 할 수 없었던 하명꾸부위노 4세가 그 누구보다도 왕국을 잘 이끌어 갈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던 형님, 디포네고로 왕자에게 술탄의



이모기리 빠지마탄 묘지 미니어처(좌) 및 지도상 위치(우)

<http://kratonpedia.com/article-detail/2011/7/22/115/Pajimatan.Imogiri.Makam.Para.Raja.Dinasti.html>



빠지마탄 묘역(좌) 술탄의 장례식(우)

<http://arsip.tembi.net/ensiklopedi-situs/pajimatan-imogiri-makam-raja-raja-mataram-2>

<https://budayajawa.id/selamatan-sesudah-pemakaman-jenazah-pada-upacara-kematian-raja-raja-kraton-yogyakarta/>

자리를 양위하려던 계획을 다누레조 재상에게 발 각당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인편을 통해 디포네고로 왕자와 의견을 나누려고 보냈던 서한 이 다누레조 재상이나 네덜란드 총독부의 손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네덜란드 측에서 디포네고로 왕자와 술탄의 자리를 놓고 뭔가 거래를 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술탄이 되어서는 절대적으로 곤란해지는 정도를 넘어 어쩌면 목숨마저 위태로워질 다누레조 재상이 먼저 손을 써 급히 술탄을 죽이고 자기가 쉽게 가지고 놀 수 있는, 더욱 만만한 술탄을 세우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밝혀지지 않은 역사적 사실은 누구도 예단할 수 없는 법이지만 최소한 그런 가설들을 세워볼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형제의 죽음에 의구심으로 가득 차 있던 디포네고로 왕자에게 네덜란드 지방총독 드 살리스 남작(Residen Baron de Salis)이 술탄의 왕좌를 제안하며 회유한 것을 디포네고로 왕자가

또 다시 거절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술탄국의 왕위를 이민족들이 거래하듯 그렇게 쉽게 입에 올리는 것이 역겨웠고 그렇게 해서 즉위한 술탄의 약점을 잡아 네덜란드 총독부가 뒤에서 꼭두각시처럼 부리겠다는 의도가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들의 거래에 응한다면 족자의 술탄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말로는 너무나 뻔한 것이다. 할 아버지인 하명꾸부위노 2세, 아버지 하명꾸부위노 3세, 그리고 내 동생 입누자룻의 말로를 이미 보지 않았던가? 술탄인데도 불구하고 땅끝으로 유배당하거나 화병과 독살로 죽고 마는 것이다. 네덜란드에게 아부하는 인간들로 넘쳐나는 족자 끄라톤에서 술탄이 된들 이민족과 싸우긴커녕 손발이 먼저 묶이게 될 뿐이다. 신에게 이미 굳게 맹세한 바, 저 네덜란드인들을 자바땅에서 몰아내려면 족자 술탄국의 국왕이 되는 것만으론 결단코 부족하다.’

디포네고로 왕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네덜란드와 다누레조 4세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부왕이 죽은지 2주도 채 되지 않던 1823년 12월 19일 하명꾸부위노 4세의 세 살박이 왕자 구스티 라덴 마스 가툼 메놀(Gusti Raden Mas Gatot Menol)을 하명꾸부위노 5세로 즉위시켰고 다누레조 재상은 그 뒤에서 왕국의 모든 실권을 자기 손에 틀어칩니다. (제3장 끝)

술탄 하명꾸부위노 4세

출처 - <https://kratonjogja.id/raja-raja/5/sri-sultan-hamengku-buwono-iv>

지난 호에 이어

3대 노인 질환

1. 치매
2. 파킨슨
3. 심혈관질환(심장병, 중풍)-생략
4. 고독사, 호흡기질환(부록)

2. 파킨슨

원인

인체를 균형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도파민 호르몬 생성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도파민 호르몬은 뇌신경세포에서 생성이 되는데, 어떠한 이유로 뇌신경세포가 죽거나 줄어들면 퇴행성 뇌질환 즉, 파킨슨병이 되는 것입니다.

도파민 분비에 이상이 생겨 움직임이 불편해지고 무표정, 손떨림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파킨슨병은 특히 고령층에서 발병 위험이 높으며, 치매와 뇌졸중과 함께 3대 노인성 질환으로 꼽힙니다. 초기 증상으로 피로, 무기력, 팔다리 불쾌감, 걸음걸이 변화, 무표정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는 약물치료와 함께 물리치료, 운동요법, 체조 등이 활용됩니다.

사례

파킨슨 환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직업은 약사이고(당시 은퇴하심) 68세의 차분한 성격의 할아버지였습니다. 파킨슨을 앓은 지 7년이 되었고 갈수록 아내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힘들어 지는 상황이었습니

다. 파킨슨 환자의 대표적인 증상은 바로 무표정과 손떨림 그리고 몸의 뻣뻣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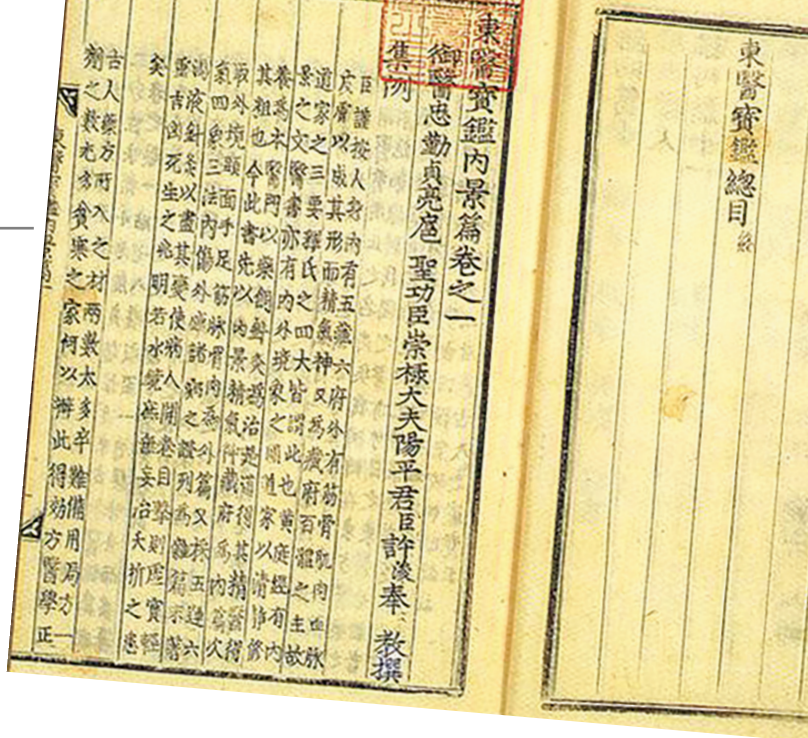
일상적 대화에서 미묘한 감정의 변화가 생기면 말이나 표정으로 나타나기 마련인데, 이 할아버지 역시 계속 무표정에, 농담을 해봐도 무반응이었습니다.

아내분께 “할아버지, 안 웃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여쭙어 보았더니 코로나 이후로 웃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전에는 가끔 밖에도 나가고 친구들도 만났는데 코로나 이후 바깥 활동은 거의 없다 싶어 하시니 코로나 시기에 상태가 더 심해지신 듯하였습니다. 한번씩 친구들과 통화해도 안부 인사만 하고 만나자는 요청에도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글: 미르한의원 원장 서상영



무표정은 다르게 표현하면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또는 “의미를 느끼지 못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웃음은 여러 방면에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큼니다. 혈액을 맑게 해주고, 염증을 억제하며, 소화기관을 튼튼히 하고, 뇌기능 유지와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등 웃음은 삶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웃음을 잃어버리신 것은 “재미를 잃었다” 또는 “재미를 못 느낀다”
재미가 없는데 세상살이가 유의미 할까?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살이에 의미를 느끼지 못하면 우리의 생명 에너지는 조금씩 약해지고 꺼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활력을 잃고 병에 쉽게 걸리고 죽음에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자존감을 높여 드리고 싶었고, 웃음을 되찾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내분께 들은 정보를 토대로 만날 때 마다 할아버지의 과거사를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직업이 약사일 때 사람들이 줄을 서서 바쁜 나날들을 보내셨다고 하시니 돈도 많이 벌고 아들 시집 장가 다 보내고 부동산 부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한껏 치켜 세워 드리고, 얼굴이 잘생겨서 인기가 많으셨겠어요(실제로 잘 생기심)~, 요리도 잘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가정적인 남편분이고 아빠여서 사랑 많이 받으셨겠네요~ 등등

몇 번의 만남 이후에도 한번도 웃어 보신 적이 없으셔서 억지로 한번 웃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가 싫지는 않으신지 억지웃음 보여 주시네요^^

내심 저렇게 억지로라도 하루에 몇 번씩 웃으시면 좋으려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들은 치료받길 권하고, 걱정 또한 되지만 회복을 위한 참여도는 떨어졌습니다. 아내분이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지금은 그러려니 하시니, 저도 더 이상 얘기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침과 한약 외에 무엇을 더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체조를 함께 해보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테니스도 치시고 코로나 전에는 산책도 자주 하셨다고 하시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시간을 소파에서 티브이만 보신다고 하니, 활동량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치료를 마친 후 몇 가지 동작을 정해서 같이 하면서 교정해 드리고를 반복 하다 보니 어느새 몇 가지 동작을 습득하셨습니다. 매일매일 하실 것을 약속받고 다음 진료 때 체크를 하고 같이 해보기를 계속했습니다. 모든 일이 결과로 이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의미있는 방법이라고 판단되어 치료하는 기간 중 계속 실천해 나갔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것인지 모르겠지만 율동하는 중간 중간, 할아버지의 입가에 미소짓고 계신건가? 하는 생각을 몇 번 했었습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그것에 의미를 찾고 재미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파킨슨 환자분들 대부분이 정신은 멀쩡하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즐거운 기억을 끄집어 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에 이런저런 질문들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 시절부터 청년기 장년기 까지 예전의 기억을 되짚어 보시면서 미소 지을법한 얘기를 하시면서도 무표정한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다시 친구들을 만나보실 것을 권유 들이고 가족들과 외출도 자주 하시고 취미활동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렸지만, 이미 자존감은 떨어진 상태고 의욕도 없으셨기에 별 대꾸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족분들에게 요 며칠은 어떻게 지내셨냐고 물어봐도 똑같이 소파에서 티브이만 보셨다고 하니 조금은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의 변화라도 조금이라도 괜찮으니 조금씩이라도 변화해 나가셨으면 좋으련만...

그 와중에 알려드린 율동은 매일매일 하신다는 얘기에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치료

서의치료

약물치료가 가장 우선적으로 처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도파민 보충 물질인 약물 복용을 시작 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3년~5년 정도가 지나면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후에 새로운 약물로 대체가 안 될 경우 수술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한방치료

1. 한의학은 근본치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식물로 치면 뿌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고쳐야 치료가 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뿌리에 해당되는 문제가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 근본 ‘원인’ 을 찾아내야 ‘진단’ 이 올바르게 됩니다. ‘진단’ 이 올바르게 되어야 ‘처방’ 이 올바르게 되고 ‘처방’ 이 올바르게 되어야 ‘효과’ 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 ‘손바닥도 부딪쳐야 소리가 나는 법’ 입니다.

환자분의 인지와 의지 또한 중요합니다.

환자분 스스로가 원인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부정한다면 첫발조차 떼기 힘든 것입니다. 설령 원인을 인지하고 받아 들였다고 하더라도, 치료를 위한 의지가 약하다면 그 또한 소용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파킨슨병 전조증상

파킨슨병 발병 몇 년 전부터 1. 램수면 장애(심한 코골이) 2. 후각저하
3. 소화장애와 변비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부말씀

한국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 하지 마! 라고 하면 더 한다.
- 큰 병 얻었다고 하면 하늘 무너진 듯이 낙담하고 놓아버린다.
- 안된다고 포기하라고 하면 죽기 살기로 해낸다.

큰병이라면 낙담은 잠시면 충분합니다. 마음을 다잡고 일어서야 합니다. 설령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은 의미있고 값지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듯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회복은 나날이 멀어지게 됩니다.

외로운 싸움이고, 도움을 주는 사람도 적을뿐더러, 나의 고충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외로운 싸움을 이어 나가야 합니다.

거북이걸음도 괜찮습니다. 산 정상을 향해 계속 나아가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라고 했듯이 가다보면 길이 보이고, 길이 열리고, 방법을 터득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하늘이 무너질 것같은 병을 얻었다는 소식을 접해도, 모든 걸 놓아버리고 낙담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 정말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립니다.

-당장의 기적같은 변화를 바라기 보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가는 여정동안 중간 중간 분명히 어려움이 닥쳐 올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고, 울고 싶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지금보다 좋아질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나아가 한다는 것입니다.

마무리 글

파킨슨병 치료의 중요한 포인트는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고, 삶이 유의미하고 재미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부정적인 생각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이 두 문장은 짧지만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인뉴스 구독자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시길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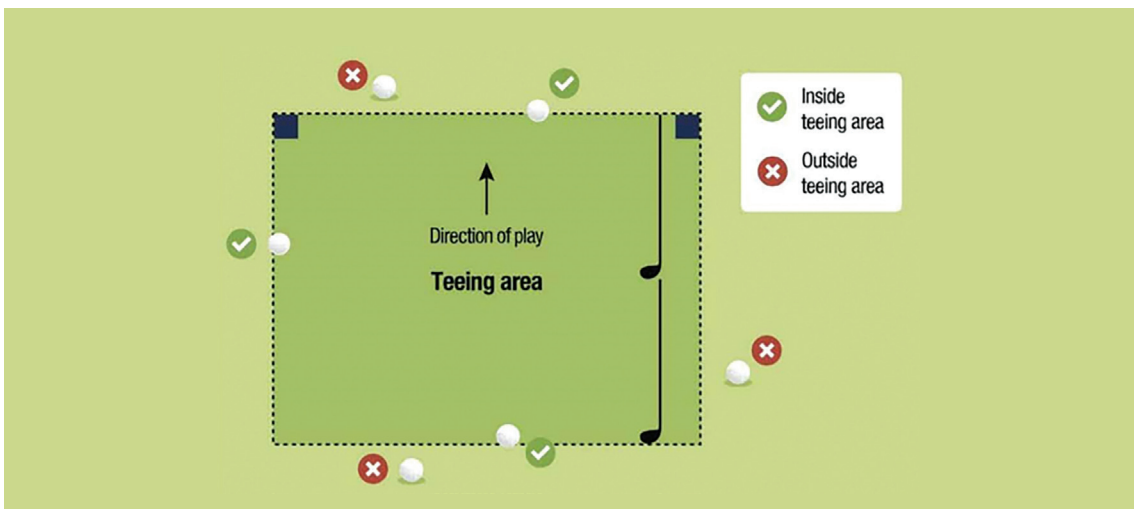
골프 뭐 있어, 한방이지!



글: 손상현(‘자카르타의 아침’블로거)

한의사가 골프장에 오면 하는 말이 있다.

“골프 뭐 있어 한방이지”



티잉 그라운드는 레드 티, 화이트 티(일반적으로 레귤러 티라고 함), 블루 티(또는 챔피언 티)로 구분된다. 일부 골프장에는 골드 티(시니어 티), 블랙 티도 있으며, 각 골프장마다 운영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 티잉 그라운드를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에는 ‘골프는 한방’이라는 의미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는 골퍼가 본인의 실력에 맞게 티잉 그라운드를 선택하여 즐겁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PGA 및 LPGA 프로의 99%는 골퍼가 자신의 능력에 맞는 티에서 플레이할 때 더 나은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아마추어 골퍼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초과하는 더 먼 비거리의 티잉 그라운드를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설문 조사 결과도 있다.

비거리에 대한 자부심은 남녀를 가리지 않지만, 골프에서 비거리는 특히 남자의 로망으로 여겨진다. 남성 골퍼들 사이에서는 비거리에 대한 자존심 경쟁이 18홀 내내 계속된다. 또한 투어 프로처럼 플레이를 하고자 하는 열망이 주말 골퍼들을 블루 티나 블랙 티에서 티샷을 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개인적으로 자카르타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블루 티에서 플레이하는 한국인과 화이트 티에서 플레이하는 일본인의 모습이 마치 국가 간의 자존심 경쟁처럼 보였던 것이다.

블루 티 플레이는 즐거우신가요?

PGA투어 프로들은 가장 뒤쪽에 위치한 블랙 티에서, LPGA는 화이트 티 이상의 티잉 그라운드에서 플레이를 하며, 모두 드라이버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 노력을 한다. 투어 프로들은 드라이버 비거리가 10야드 증가하면 게임당 버디 수가 평균 한 개 정도 더 늘어난다는 통계 자료가 있다. 페어웨이 안착률은 4~5% 감소하지만 샷 아이언과 웨지 사용으로 그린 공략이 가능해져 버디 확률이 높아진다.

자카르타 골프장들은 건기와 우기에 따라 티샷의 비거리 차이가 크다. 건기에는 비가 적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페어웨이가 돌처럼 딱딱 해지고 런이 많이 발생한다. 낮은 탄도로 짧은 티샷을 하는 주말 골퍼에게도 이 시기에 블루 티 플레이가 즐거워진다. 티샷 방향이 좋으면 평소보다 20~30m 더 나가고, 운이 좋아서 내리막을 타고 약 40~50m 이상 굴러가기도 한다.

우기에는 매일 비가 와서 페어웨이가 항상 젖어 있기 때문에 런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낮은 탄도의 티샷을 하는 골퍼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우기에는 비와 함께 바람도 많이 불어 높은 탄도의 티샷을 하는 골퍼들도 비거리를 내기 쉽지 않다.

주말 골퍼들은 건기에 블루 티 플레이를 훨씬 더 여유 있게 즐길 수 있지만, 평소 꾸준한 근력 운동과 연습으로 비거리를 충분히 늘리는 것이 블루 티 플레이를 즐기는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자카르타 인근의 골프장마다 전장과 코스 특성이 다르므로 블루 티 플레이를 위해서 골프장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베의 성지로 불리는 가딩 라야 골프장은 자카르타에서 골프를 배운 주말 골퍼들이 스코어를 줄이기에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자고라위, 로얄 자카르타, 수바르나, 다마이인다 BSD, PIK코스, 등은 블루 티 플레이를 피해야 할 골프장이다. 특히 자고라위는 블루 티가 가장 뒤에 있어, 세컨드 샷을 할 때마다 우드 또는 하이브리드를 사용하고 싶지 않다면 화이트 티로 옮겨 플레이하는 것이 현명하다.

티잉 그라운드를 선택하는 방법은?

<아마추어 골퍼의 평균 드라이버 비거리와 18홀 권장 비거리>

	SWING SPEED (mph)	AVERAGE DRIVE (yards)	YARDAGE RANGE	MID POINT PERCENTAGE
AVERAGE SWING SPEED FEMALE GOLFER	65	140	4,000 - 4,200	65%
	75	165	4,800 - 5,000	78%
	85	190	5,600 - 5,800	90%
AVERAGE SWING SPEED MALE GOLFER	90	202.5	6,000 - 6,100	96%
	95	215	6,200 - 6,400	100% base
	105	240	6,800 - 7,000	110%

Tee it FORWARD

PGA, USGA는 Tee it FORWARD 프로그램을 통해 드라이버 비거리를 기준으로 티잉 그라운드를 선택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드라이버 거리	18홀 권장 YDS	드라이버 거리	18홀 권장 METER
275	6,700 ~ 6,900	251	6,126 ~ 6,309
250	6,200 ~ 6,400	229	5,669 ~ 5,852
225	5,800 ~ 6,000	206	5,304 ~ 5,486
200	5,200 ~ 5,400	183	4,755 ~ 4,938
175	4,400 ~ 4,600	160	4,023 ~ 4,206
150	3,500 ~ 3,700	137	3,200 ~ 3,383

일반적으로 블루 티 플레이를 하려면 약 250 yds (230m)의 드라이버 비거리가 필요하다.

Best Tee

	Average Male Golfer	Average Female Golfer
Average 7-iron Distance	138	100
Reasonable Par-3 Distance	152	109
Reasonable Par-4 Distance	359	259
Reasonable Par-5 Distance	476	353
“Best Tees” Recommended Par-72 Course Length	6,100	4,437

Best Tees 시스템은 7번 아이언 비거리 범위를 기반으로 티잉 그라운드를 선택할 것을 권장한다. 남자 138야드(126m) 일 때 전장이 6,100야드(5,578m), 여자 100야드(91.4m) 일 때 전장이 4,437야드(4,057m)가 되는 티잉 그라운드에서 티샷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2023년에 미국 전역에 있는 60개 이상의 골프 코스에서 테스트되었다고 한다.



블루티에서 좋은 스코어를 기록하려면

티샷의 방향성과 비거리가 비슷하다면 화이트 티에서의 스코어가 훨씬 더 좋아야 하지만, 대부분의 주말 골퍼들은 블루 티에서 비슷하거나 약간 더 나쁜 스코어를 기록한다.

티샷 비거리가 부족한 주말 골퍼가 블루 티에서 티샷을 할 때 드라이버의 미스샷에 대한 부담감과 더 멀리 치려는 욕심으로 인해 늘 긴장하게 되며, 이는 스윙 리듬에 영향을 미쳐 18홀 중 1~2번 이상의 미스 샷을 경험하게 된다. 미스샷 이후에는 롱 아이언, 우드, 유틸리티 등으로 그린을 공략하다가 그린 주변 트러블 샷이나 쓰리 퍼트로 인해 많은 타수를 잃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능력에 맞는 티잉 그라운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블루 티 플레이를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이 시도해 보자.

첫째, 비거리보다는 페어웨이를 지키는 티샷을 하자. 멀리 치려는 생각을 버리면 가볍게 스윙할 수 있다. 다만, 평소에는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 가볍게 근력 운동과 빠른 걸음으로 워킹하는 연습을 하면 큰 도움이 된다.

둘째, 우드나 유틸리티 중에서 실수 확률이 낮은 나만의 필살기를 준비하자. LPGA에서 박세리 선수와 우승 경쟁을 했던 땅콩 김미현 선수는 유틸리티로 아이언보다 더 정확한 샷을 해서 많은 우승을 했다. 만약 그런 클럽이 없다면, 가장 편안한 스윙을 할 수 있는 클럽을 선택하여 자신 있게 샷을 해보자. 골프는 자신감이 중요하다.

셋째, 라운드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연습 그린과 연습 그린 주변에서 잠시 연습을 하자. 피칭 웨지, 9번, 8번 아이언으로 러닝 어프로치 연습을 많이 하고, 웨지 샷은 생각보다 과감하게 해야 한다. 퍼트는 연습 그린에서 그린의 스피드를 감각적으로 느껴 보면서 연습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강한 임팩트보다는 임팩트의 정확성을 높이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 같은 스윙 스피드에서도 임팩트 정확도가 높으면 비거리와 방향성이 모두 향상된다.

드라이버 샤프트의 강도를 높이려는 주말 골퍼들도 있는데, 샤프트를 교체할 때는 반드시 피팅을 받는 것이 좋다. 또한 충분한 연습과 웨이트 트레이닝, 레슨을 병행해야 본인이 원하는 비거리를 달성할 수 있다.

자카르타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블루 티 플레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매 라운드마다 반드시 블루 티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본인에게 맞는 티잉 그라운드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시간이 지나 골프 실력이 향상되고 비거리가 충분해지면 그때 여유 있게 블루 티나 블랙 티 플레이를 즐겨도 늦지 않다.



제74주년 6.25 전쟁 기념식 및 나라사랑 글짓기 시상식

2024년 6월 22일, JIKS나래홀에서 제74주년 6.25 전쟁 기념식 및 나라사랑 글짓기 시상식이 자유 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 주최로 열렸다.

박수덕 총영사, 이준승 참사관, 이성호 영사, 한인회 김중훈 수석부회장, 송광중 전민주평통 회장, 이선아 교장과 디디삼수단 UPI 한국어과 학과장을 비롯한 자총회원들, 수상한 직스 학생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이날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 주니어자유연맹’ 발족을 하여 인니지부 주니어자유연맹 회원 10명 중 오는 8월 2일부터 8일까지 모국연수 일정에 참여할 김단아 학생과 송지섭 학생을 선발하였다. 이번 해외지부 주니어 자유연맹 모국연수에는 33개국 해외지부와 국내 주니어자유연맹 회원들과의 친목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전민식 회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 모두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숭고하게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에 감사하며 약 천만명의 이산가족과 함께 삶의 터전이 잿더미가 되었던 폐허 위에서 세계에서 주목받는 자유 민주주의국가로서, 세계경제 10위권 경제대국을 이룸으로써, 전세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음은 물론, 최근 포항 앞바다에서 140억 배럴의 석유 매장지의 높은 가능성을 정부가 발표함으로써 유전국으로 가는 길목에 있어 세계를 리딩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되는 그 날까지 우리 모두 함께 이루어가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UPI 대학 한국어학과 학생의 K-Pop 댄스와 K-Art 예술단의 한국무용 등이 관객의 호응 속에 펼쳐졌다.

나라사랑 글짓기(JIKS)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중 고등부>

대상: 김평안(11학년)

최우수: 박찬우(12학년)

우수: 송유민(10학년), 김민서(9학년)

장려: 김소미(8학년), 정윤아(7학년), 김서린(12학년), 정현서(11학년)

<초등부>

최우수: 홍서윤(6학년)

우수: 이다은(5학년), 김예지(4학년)

장려: 김리안(6학년), 박서윤(6학년), 임세아(5학년), 오시현(4학년)

당신의 “꿈”을 만들어라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학교협동조합형 <드림카페> 창립



선정된 로고로 만든 간판

카페 운영 중인 학생들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이하 “JKS”, 학교장이선아)는 2024년 5월 31일(금) 박재한 재단 이사장, 박수덕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총영사를 포함한 내빈들과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학교협동조합형 ‘드림카페’의 창립 총회와 테이블프 커팅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내빈 인사와 축사를 시작으로 진행된 총회에서 학교협동조합의 목표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학교협동조합 동아리 학생대표인 11학년 김평안 학생의 프레젠테이션을 시작으로, 경영팀, 마케팅팀, 실무팀 대표 학생이 각 팀을 소개하고 협동조합의 활동 내용을 발표하여 그 의의를 더하였다.

37명의 학생들로 구성된 JKS의 학교협동조합 동아리가 주관하는 ‘드림카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직업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모의 경영 체험을 통해 얻은 이윤을 사회로 환원하는 사회적 경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을 목표로 하고 있다. 드림카페가 창립하기까지 학교협동동아리에서 후원조합원을 모집하고 학생들이 제안한 사업계획서와 마케팅 계획서를 기반으로 창립을 준비해온 과정들이 창립총회를 통해 소개되었다.

카페의 이름인 ‘드림카페’ 역시 동아리 학생들이 내부에서 실시한 공모전을 통하여 선정된 것으로,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선정된 이름이다. ‘드림카페’의 ‘드림’은 학생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의 ‘Dream’과, ‘드림(베픍)’의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카페의 로고 역시 로고 공모전을 통해 선정되었는데, 당선된 학생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건넨다는 뜻도 되고 서로 함께 하는 악수의 모습도 됨을 의미하는 로고로 음과 양의 조화에서 영감을 받아 태극무늬를 띄게 구성하였다’고 로고를 제작한 의미에 대해 설명하였다.

JKS 이선아 교장은 창립사를 통해 JKS 학생들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과 협력하여 직접 기획·운영한다는 점에서 드림카페는 화합과 소통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드림카페 창립을 계기로 인도네시아의 한인사회가 하나로 통합되어 자카르타 지역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기회들을 마련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드림카페’는 창립식 이후 교사들을 대상으로 6월 3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6월 10일부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의 대상을 넓혀가고 있다.

2024 JIKS 초등과정 인니어 동요 부르기 주간



2024년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JIKS, 교장 이선아)에서는 06.10.~06.14일까지 한 주 동안 인니어 동요 부르기 주간 행사가 열렸다.

인도네시아 문화 이해를 위한 인니어 동요 부르기 주간은 초등과정 1~4학년을 대상으로 한 주 동안 아침 등교 시간 버스킹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총 21개팀, 46명의 학생이 참가하였다.

동요 부르기 주간을 통해 주재국 문화 이해, 학습동기 부여 및 즐거움과 자긍심을 길러주며,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산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아침 시간 친구들이 함께 관람하며 박수 치고 응원하는 모습을 보며 친구들을 향한 배려와 격려의 모습 또한 참 예쁘고 보기 좋은 즐거운 시간이었다.



동요 부르기에 참여하였던 학생들도 “인니어를 동요를 통해 배우고 직접 불러보니 인도네시아가 더 친근하게 느껴지고 재미있는 시간이었다.” 라는 반응이었다.

서울시교육청 일반행정직 봉사단 교육기부 및 교육봉사 실시

5월 21일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교장 이선아)에 서울시교육청 일반행정직 공무원 봉사단이 본교 및 인도네시아 현지 학교 방문을 통해 교육기부와 교육봉사를 실시하였다.

본교 초·중등 학생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크롭북, 티볼세트, 영어교재, 무선마이크, 보건약품 등을 교육기부를 해 주셨으며, 행정실에는 학교 건물 및 안전성 검사 등 필수적인 행정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 현지 학교를 방문하여 소화기 점검 및 기부, 책·결상 수리 및 보수, 그 외 학교 시설 전반에 걸쳐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서울시교육청 방문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교육기부 및 교육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JIKS 초등과정 재난대비 안전교육 -JIKS 지진대피훈련 실시-

5월 29일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교장 이선아) 초등과정에서는 초등 전교생 및 전교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지진 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에 앞서 본교에서 자체 제작한 지진 발생 시 대피 훈련 영상을 보며 유사 시 책상 등 가구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기, 출구 확보 및 건물 밖으로 이동하기, 머리를 보호하며 넓은 곳으로 대피하기 등 단계별 행동 요령에 대해 알아보았다.

훈련 상황 개시에 따라 즉시 책상 밑으로 대피한 후 몸을 보호하고, 지진이 멈춘 상황을 가정해 가방 또는 교과서 등을 통해 머리를 보호하며 정해진 대피로를 따라 신속하게 운동장 대피장소로 대피함으로써 훈련을 마무리했다.

이번 훈련을 통하여 지진 등 재난 상황에서 침착하게 반응하고 신속하게 대피하며,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의 몸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JIKS 어린이가 되기를 기대한다.



프레지던트 대학 “KOREAN DAY” 열어

2024년 6월 7일, 프레지던트 대학(찌까랑 자바베 카 공단)에서 “KOREAN DAY” 축제가 열렸다.

한국 축구선수로는 손흥민 선수 다음으로 많은 223만명의 SNS 팔로워를 거느려 한국소비자 포럼이 주최한 ‘2024년 인도네시아 K명사 부분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신태용 감독이 토크 쇼에 출연해 많은 학생들의 환호를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덕 주인도네시아 대사와 박재한 인도네시아 한인회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으며, 김용운 한국문화원장, 장윤하 인도네시아중소기업협회 회장, 이장희 코트라 관장, 다르모노 자바베카 그룹 회장, 프레지던트대학 총장, 부총장과 1000여명의 학생들로 성황을 이뤘다.

한국의 주요 대학 대학원에 입학하는 프레지던트 대학 학생들을 위한 현대차 정몽구재단의 장학증서 수여식에서는 대학원 진학하는 학생들을 지원

함으로써 교육 분야에서의 한-인도네시아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재인니 한인회, 한국문화원, 현대차 정몽구 재단, 코트라, 무궁화유통, 현대자동차, 한-인도네시아 중소기업협의회(KOSA), 엄마손, 신한투자증권 등의 후원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김기찬 카톨릭대학교 명예교수가 지난해 2월부터 국제 부총장으로 근무하며 학생들에게 K기업가정신을 강의하고 있다

이 행사를 준비한 김 교수는 “내년에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경제와 문화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한인들의 후원으로 풍성한 축제의 날이 될 수 있었다”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문화 교류와 친선을 높이는 데 힘을 모은 한인 사회에 고마움을 전했다.



제 69회 현충일 추념식 및 북한 인권 개선 촉구 회의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동남아남부협의회(회장 이세호)는 6월6일 11시 예원VIP 룸 자카르타에서 제69회 현충일 추념식 및 북한 인권 개선 촉구 회의를 진행하였다.

현충일 추념식과 북한 인권 개선 촉구 대회 순으로 진행하였다.

1부 현충일 추념식은 6610 묵념, 국민의례, 윤석열 대통령 추념사, 추모영상 시청, 현충일의 노래 제창 과 2부 이세호 협의회장의 개회사, 북한 인권에 대한 영상 시청, 북한 인권 관련 21기 자문 위원들의 의견수렴 분석 결과 발표, 북한인권 개선 촉구안 선언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는 주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 박수덕 공사와 이세호 협의회장, 정제의 간사를 비롯하여 제 21기 자문위원님들이 참석하여 1분간 사이렌에 맞추어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영웅들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는 마음과 그분들을 잊지 않게다는 하나된 마음의 약속인 6610 묵념에 동참하여 추념식을 시작하였다.

2부 이세호 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동남아남부협의회는 정부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 (비핵 -



평화 - 변영의 한반도) 을 지지하며 북한의 기관과 관리들에 의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는 상황과 2020년부터 북한이 국경봉쇄로 인하여 국제 인권 및 인도주의 구호 단체의 상주를 막는 행위로 북한의 열악한 경제 상황에 장기적인 악영향과 함께 심각한 식량 문제를 초래할수 있다” 고 규탄하고, 조속히 국제 인도주의 단체와의 관계 개선 및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가 북한주민들이 인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였다.

또한 “근래의 국제사회의 많은 노력에도 북한은 아직도 최악의 인권 사각지대로 남아있기에 우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남아남부협의회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북한인권의 실상을 이해하고 ‘북한인권 증진이 북핵문제의 해결과 평화통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교민사회 및 거주국 주요 인사들에게 널리 알리는 역할에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또한 북한이 조속히 외교와 인도주의 인력의 복귀 등을 통해 유엔 인권 단체 및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하여 생명, 자유, 안전 등 기본 인권을 인정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한” 개선 촉구안을 채택하였다.

(제공: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동남아남부협의회)

팀코리아 합동방문단, 인니 신수도 참여방안 모색

- 주인니대사관, 건설업협의회, 한인상공회의소, 행복청

신수도 합동 현장 방문 및 워크숍 실시 -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이상덕 대사)은 2024. 6. 20일(목), 재인니한국건설업협의회(AKCI), 재인니한인상공회의소(KOCHAM),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함께 우리 기업의 인니 신수도 참여방안 모색을 위한 「팀코리아, 인니 신수도 합동 현장방문 및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 현장방문 및 워크숍 개요 >

△ 일시 : 2024. 6. 20(목) 08:00 ~ 21:00

△ 장소 : 인니 신수도 현장 일대(칼리만탄섬)

△ 참가기관 : 주인니대한민국대사관, 재인니한국 건설업협의회 및 재인니한인상공회의소 회원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주요내용 :

- ① 인니 신수도 건설현장 방문(정부청사, 진입도로, 정수장 등)
- ② 신수도 사업 정보공유 및 참여방안 논의를 위한 워크숍 실시

인도네시아는 현 수도인 자카르타의 지반 침하, 자바섬의 경제·인구 집중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북동쪽으로 약 1,400km 떨어진 칼리만탄섬 누산타라로 옮기는 대형 프로젝트(총 사업비 약 40조원)를 추진 중에 있다. 2019년 발표된 수도이전 계획에 따르면 2045년까지 5단계 개발계획에 따라 신수도 개발이 진행되며, 이를 위해 2022년 신수도법 제정 및 신수도청 수립, 대통령령·정부청사 등 주요건물의 공사를 시작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금년 8월 17일 제79주년 독립기념일을 맞이하여 독립기념일 행사를 누산타라에서 개최하면서 공식적인 수도이전을 선포할 예정이다.

다만, 전체 사업비의 80%를 해외 민간투자를 통해 조달하여 신수도를 건설하겠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계획에 따라 약 400여건의 업무협약(MOU) 체결 및 투자의향서(LOI) 제출 등 해외 투자자의 관심이 계속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해외의 직접적인 투자 사례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이에,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과 재인니한국건설업협회의회 및 재인니한인상공회의소는 신수도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신수도 이전사업 진행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관계기관 간 동 사업의 정보공유 및 우리기업의 참여방안을 검토·모색하기 위해 동 현장방문 및 워크숍을 준비하였다. 팀코리아 방문단은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신수도 주요 지역을 돌아보고 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특히, 한국 정부의 ODA 프로그램으로 건설 예정인 신수도 탄소중립정수장 부지(K-water)도 방문하여 양국 간 협력의 場도 확인하였다.

동 행사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나라 주요 건설사들과 SSA, HANINDO 등 대표적인 교민 건설·물류 기업들이 참석하였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도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를 직접 방문하여 신수도 합동 현장방문에 참여하였다.

이상덕 대사는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유일한 국가로서, 외교, 경제, 문화, 인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의 교류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인프라 분야도 2019년과 2022년 해외건설 수주금액 1위를 인도네시아 차지하는 등 우리 기업의 참여가 활발하다”고 하면서, “신수도 이전사업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인 만큼 팀코리아 수주지원단의 합동 방문을 통해 우리기업의 참여방안 및 여건 등을 심도 있게 살필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수주지원단을 격려했다.

이번 팀코리아 신수도 현장방문에 동행한 인니한국건설업협회의회 황의상 회장은 “우리나라는 세종시를 건설한 노하우를 갖고 있으므로 인니 신수도 사업에도 많은 참여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과거 중동처럼 인도네시아가 우리 건설업계의 큰 시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건설사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하였으며, 재인니한인상공회의소 이강현 회장은 “우리 기업의 지원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팀코리아 플랫폼 업무협약(대사관, KOCHAM, 공공기관) 등을 맺어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디딤돌이 마련된 바, 이번 합동 방문을 통해 그 디딤돌이 더욱 다져지기를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은 신수도 이전사업 뿐만 아니라 플랜트, 도로, 철도, 공항 등 다양한 인프라 분야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개최 중인 「팀코리아 해외건설 협의회」를 지속 운영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지원을 위한 고위급 네트워킹 등 우리기업의 해외건설 수주지원을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 나갈 예정이다.

(제공: 주인니한국대사관)

우리가 느끼는 감각



고아라(제6회 적도문학상 수상자)

나의 하루는 다양한 소리가 한데 모여서 이루어진다. 자동차 바퀴 구르는 소리, 커피잔 속 얼음이 잔에 부딪히는 소리, 서로 건네는 인사말 등을 듣다 보면 하루가 간다. 일상에 정지 버튼을 누르고 그 순간을 채우는 소리에 집중하곤 한다. 서로 다른 장소와 시간은 저마다의 소리로 채워진다. 자카르타 소리에 익숙해진 내게 오랜만에 방문한 한국이 들려준 소리들은 가라앉아 있던 기억을 일렁이게 만들었다. 하마터면 스타벅스에서 내 이름을 호명할 때 그 음절 하나하나가 너무나 또렷해 눈물이 날뻔했다. 어딜 가나 모국어는 나를 둘러쌌고 그 어떤 감각보다 강렬히 나를 흔들어 댔다.

인천공항 안내 로봇 에어스타가 눈앞으로 미끄러져 지나갔다. 유명 연예인 못지않게 인기 많은 에어스타는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에도 흔들림 없이 가던 길을 갔다. 그 장면은 마치 로봇과 인간이 공존해 살아가는 미래 도시의 모습 같았다. 눈앞의 현실인데도 나는 보이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채 미래 같다고 생각했다. 당당한 에어스타의 뒷모습을 부러운 눈길로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자카르타행 비행기에 오를 시간이 되었다.

“손님 여러분 수카르노 하타 국제공항까지 가는 ○○항공 000편 잠시 후에 출발하겠습니다.”

어디든 여행 떠나기 전까지가 가장 신나고 흥분되듯이, 반가운 얼굴들을 마주하고도 종종 마음속에서 남몰래 떠올린 곳은 내 집이 있는 곳, 자카르타였다. 의자 머리 받침에 머리를 대고 눈을 감았다. 인도네시아로 이주 후 처음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의 감정이 떠올랐다. 한국인 승무원들의 등장과 동시에 이미 나는 한국이었다. 귓가에 들리는 한국어가 그토록 따뜻한 적은 없었다. 두 손을 내밀어 덥석 잡아주는 오랜 친구이자 외락 끌어안아 주는 친정 부모님 같았다.

그때와 180도 달라진 내 감정에 비웃음이 밀려왔다. 사무치게 그리워하던 고국인데, 이상하게도 떠날 때의 나는 뒤도 한번 안 돌아보고 멀어지는 연인의 뒷모습처럼 냉정했다. 분주했던 기내는 조용해졌다. 말없이 모니터에 눈을 고정한 사람들을 보니 어김없이 애니메이션 “Wall.E”가 떠올랐다. 그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니터 달린 의자에 앉아, 때가 되면 제공되는 밥을 먹으며 자신들이 모든 걸 누린다고 생각한다. 사실은 그렇게 사육됨으로써 진실을 보는 눈을 잃고 만다.

비행기 선체에 불이 켜졌다. 불빛은 잠든 이들을 깨우며 열심히 어둠을 밝혔다. 무더진 감각들이 조금씩 깨어났다. 쿵! 요란하게 바퀴가 지면에 닿으며 자카르타에 도착했다. 여기저기서 바하사 인도네시아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낯선 듯 익숙한 그 언어로 적힌 안내판들이 공항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히잡을 쓰고 있는 공항 직원들이 눈에 들어왔다. 입국 심사소에는 같은 비행기를 탄 게 맞는지 싶을 정도로 발 빠른 사람들이 벌써 길게 줄을 서 있었다. 모자를 벗자 드러난 구겨진 머리칼을 이리저리 쓸어내리며 입국 심사를 받았다. 낮가림이 심한 나는 얼른 입국 심사 과정이 자동화되어서 더 이상 출입국 관리직원과 대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공항 밖으로 나서자 꽤 쾌한 바깥 공기가 내 코에 불쑥 들어왔다. 초대받지 못한 불청객 같은 그 냄새는 내가 이미 자카르타로 돌아왔음을 확실히 깨닫게 해주었다. 흠뻑 코로 들이마시기엔 건강이 걱정되는 그 냄새가 어딘가 모르게 정겨웠다. 7시간 전까지 온몸으로 느끼던 서울의 삶은 전생이었던 것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다음 날 자카르타의 하루가 시작됐다. 꼭두새벽 4시쯤 들리는 첫 ‘아잔’ 소리는 단단히 잠들어 있는 도시에 균열을 만들어 냈다. 며칠 한국에서 지내다 왔을 뿐인데 새벽 아잔 소리에 잠이 깨버렸다. 잠을 설친 내 모습이 아마추어 같아 살짝 실망스러웠다. 아잔 소리 중간중간 들려오는 닭 울음 소리는 아잔 소리만큼 낮설고 이국적이라 이곳이 한국이 아님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다.

동이 트자, 자카르타로 향하는 기다란 출근 행렬이 이어졌다. 오토바이 엔진 소리는 자카르타 주변 도시에서 자카르타 시내 곳곳으로 옮겨졌다. 태양이 떠오를수록 도시 위에 낮게 깔린 스모그가 점차 윤곽을 드러냈다. 높은 빌딩 끝자락에서부터 멀리 보고르의 산꼭대기 위까지 스모그가 두껍게 깔렸다. 가끔 비가 거세게 내린 날은 스모그 띠가 사라져 보고르의 산들이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는데, 평소 그 산들을 볼 수 없었던 나는 마치 그 광경이 신기루처럼 느껴졌다.

아이 점심 도시락을 싸기 위해 부엌으로 나왔다. 자카르타 일상의 신호탄 같은 도시락 준비는 나의 일상이 서울에서 자카르타로 옮겨졌던 것을 증명해 보였다. 부엌 조리대 위 놓여있는 조화는 조명 아래에서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화사하게 피어있었다. 시들 줄 모르는 그 꽃은 가짜였지만 매일 같이 내게 안겨준 즐거움은 진짜였다.

부엌 옆 뒷문 열쇠 구멍이 딸깍 돌아갔다. 파출부 이모의 출근 시간이었다. 가벼운 인사를 하고 부족한 잠을 채우기 위해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머리를 댔다. 방문 밖에서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들려왔다. 그릇끼리 부딪히는 소리는 자장가처럼 평화로웠다. 어릴 적 거실에서 뒹굴거리고 있을 때, 툇가에 들리던 엄마의 설거지 소리와 닮아 있었다.

오늘도 나의 감각들이 만들어 낸 인지 조각들은 내 입맛에 맞게 머리에 기록됐다. 그렇게 머리에 기록된 나의 느낌과 생각들은 어딘가는 진실되고 어딘가는 왜곡되어 마치 상대성 이론 속 시간처럼 어느 순간엔 길게 늘어지고 어느 순간에는 찰나였다. 내 감각의 사고는 제멋대로라 때때로 진실은 달의 뒷면에 있었고 아무리 노력해서 망원경을 들여다봐도 결코 알 수 없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름』
델핀 페레 지음, 백수린 옮김 창비, 2023
Le plus bel été du monde (2021)

이과는 아니지만 물리학 그 중에서도 양자역학에 대해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다. 특히 마음을 끌었던 부분은 불확정성과 중첩성으로 시간과 공간을 보는 관점이었다. 그런 이유로 한동안 테드 창치의 단편 <내 인생 이야기>와 이를 영화화한 드니 빌뇌브 감독의 <컨택트>에 빠졌었다. 소설과 영화에서 등장하는 외계의 언어는 과거-현재-미래를 한꺼번에 표현한다. 그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는 말을 시작하는 순간 결말까지 미리 다 볼 수 있다는 마법 같은 이야기였다. 그러나 아이를 키우면서 상상 속이나 존재할 듯한 이런 시공의 개념이 현실로 다가왔다. 아이에게서 나와 내 부모의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에 말이다. 우리는 모두 다른 시간을 살아왔으나 서로를 통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었다. 시간은 어쩌면 선형적으로 흐르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이와 비슷한 생각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름』에도 담겨있다. “준비됐어?”로 시작하는 엄마와 아들의 여름 여행기. 모자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시골집에서 한 계절을 보낸다. 조부모와 엄마 그리고 아이로 이어지는, 세 세대를 관통하여 서로 다른 시간이 하나로 연결되는 경험을 작가 델핀 페레도 했을까? 실제로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히기도 했다. “어느 장소에 있든지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느낄 수 있다.” 가족의 추억이 깃든 장소를 통해 각자 다른 시간을 살았지만 앞선 사람들과 다음 세대가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작가의 생각은 수채물감과 펜으로 그린 120여쪽의 그림들 속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여백이 많고 투명하지만 쓸쓸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그림들은 시와 같은 이야기를 전달한다. 거기에 엄마와 아들의 사소하고 덧없는 대화의 편린이 곁들여진다.



오래 전 찬장위에 두었던 사탕, 주머니에 가득 넣은 코르크 마개, 청딱따구리소리, 어린 시절 엄마가 가장 좋아했던 자리, 먼지 가득한 다락방, 할아버지가 잡아온 독 없는 뱀, 말라비틀어진 풍뎅이, 왼쪽만 남은 장갑들, 식탁아래 붙어 있는 껌처럼 특별한 것 하나 없는 일상의 소소하고 평범한 이야기들. 스쳐 지나가면 잊어버릴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테다. 심심한 조각들이 모여 한 계절을, 유년을, 인생 전체를 이룬다. 독자는 작품을 통해 이 같은 시간들이 세대를 거듭하여 쌓인 흔적을 발견하고 시간에도 켜켜이 쌓이는 두터운 질감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커다란 풍뎡이 찾기



여름을 보내며 아이는 만남과 헤어짐, 다툼과 나눔, 엄마와 추억 쌓기,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홀로서기 등을 경험한다. 그 과정에서 일상의 평범함을 즐기고, 사촌에게 아끼는 모자를 나눠주고, 할머니를 배려하는 마음 등도 갖게 된다. 혼자 신발끈을 묶지 못해 끔찍했지만 한 계절을 보낸 뒤 아주 쉽게 그 미션을 달성한다. 아이의 몸과 마음이 쑥 자라났다. 함께한 어른도 성장하고 성숙해진다. 이 계절은 또 다시 한 겹 쌓여 미래의 누군가에게 전달될 것이다.



촉촉한 풀밭위에 눕기



아이들이 어릴 때는 말로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해서 답답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관계를 이리 저리 혼자 생각해볼 기회가 많았다. ‘이렇게 아름답고 신비로운 관계가 또 있을까?’ 동시에 나의 부모도 떠올랐다. ‘나’라는 존재는 ‘나’에서 머무르지 않고 위 세대와 아래 세대로 이어지며 공존하는 게 아닐까, 아이를 통해 과거가 미래로 전달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과 함께 말이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지금 이 순간 내 눈앞에 있는 자그마한 존재들에게서 동시에 재현되고 있음이 느껴졌다. 우리가 태어나 죽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실 계속되는 현재 속에서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다. 작품 속 아이와 엄마가 보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름’이 늘 우리를 스치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금으로.

저출생대응기획부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에서
처음 밝힌 신설 계획으로
저출생·고령화를 위한 부서



2024 이달의 시사상식

핵심 인물을 암살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사이버 공격, 핵 과학자 암살, 무인기 공격 등이 이에 해당하며, 주변 세력이나 제3국을 통해 자행되기도 한다.

1. 이중가격제

‘이중가격제’는 동일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거래자나 장소에 따라 두 가격을 유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말 그대로 같은 재화나 서비스인데 몇몇 기준을 정해두고 다른 가격에 제공하는 것이다. 최근 일본의 몇몇 식당에서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가격을 다르게 적용해 논란이 되고 있는가 하면, 국내에서 역시 일부 업체에서 배달용 가격과 매장 가격을 다르게 적용하는 ‘이중가격제’를 도입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2. 김미영 팀장

‘김미영 팀장’은 악명을 떨친 1세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박모(53)씨가 사용한 가상의 이름과 직책이다. 한편 박 씨가 필리핀 현지 교도소에서 탈옥해 우리 정부가 비상 대응에 나섰다.

3. 새만금

새만금(新萬金)은 ‘김제·만경의 평야가 합쳐 새로운 땅이 생긴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해당 지역은 예전부터 ‘금만평야’라고 불렀는데 새만금은 여기서 ‘금만’의 순서를 바꾼 것이다. 새로움을 의미하는 ‘새’ 글자와 만경평야의 ‘만(萬)’자, 그리고 김제평야의 ‘금(金)자’를 합쳤다.

4. 그림자 전쟁

‘그림자 전쟁’은 선전포고를 통한 공식적 또는 직접적인 전쟁이 아닌, 자국의 개입 사실을 숨긴 채 특정 국가의 중요 시설을 공격하거나 해당 국가의

5. 동백패스

‘동백패스’는 동백전 후불교통카드로, 부산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 사용한 다음 달에 동백전으로 이용 요금을 환급해 주는 서비스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요금이 월 4만 5천 원을 넘긴 경우 초과요금 가운데 최대 4만 5천 원을 돌려준다. 이러한 동백패스는 지난해 8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6. 간성

간성은 암수가 따로 나뉘어져 있는 개체에서 나타나는 암(자형)과 수(웅형) 어느 쪽에도 포함되지 않는 중간 형태나 성질을 가진 개체를 말한다. 많은 식물과 동물에서 이러한 간성이 나타나는데, 물론 인간도 마찬가지이다. 간성은 흔히 1차 성징, 2차 성징, 3차 성징 어느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고 심각한 정도도 각각 다 다르게 나타난다. 이때 간성 중 암컷형질을 강하게 나타내는 것을 ‘자간성’, 수컷형질을 강하게 나타내는 것을 ‘웅간성’이라 분류한다.

7. 저출생대응기획부

‘저출생대응기획부’는 지난달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에서 처음 밝힌 신설 계획으로 저출생·고령화를 위한 부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존 저출생 문제를 담당해 온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를 정식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로 승격하고, 저출생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게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출처: 카드로 보는 시사상식]



김치의 인도네시아 진출기

글: 조연숙 데일리인도네시아 편집장

2000년대 초반, 자카르타 중심가에 위치한 하얏트 호텔 뷔페 식당에서 배추김치와 오이 김치를 보았다. 좀 놀라웠다. 한국인이 담가서 호텔에 납품한다고 했다. 당시 엘지와 삼성 같은 대기업을 선두로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면서 한국인 출장자가 큰 고객이 됐고, 그들을 위해 하얏트, 샹그릴라, 웨라톤 등 주요 호텔에서 김치를 제공한 것이다. 그날 같이 저녁을 먹은 지인은 인도네시아인 직원들이 한식당으로 김치를 얻으러 온다고 했다. 큰 회사의 경우 한국인 직원을 위한 한식당과 인도네시아인 직원을 위한 인도네시아 식당을 따로 운영하는데, 인도네시아인 직원이 한식당에 와서 ‘라면에는 김치를 먹어야 한다’며 너스레를 떠는 것. 이 직원은 기술연수를 위해 한국에 갔다가 김치에 맛을 들였다고 했다.

한국인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것은 1960년대 말이다. 한국인 직원이 많은 회사에서는 한국에서 한식 조리사를 데려왔고 고추가루 등 식재료를 한국에서 가져와서 한식을 제공했다. 이런 규모가 안 되는 경우는 가정에서 김치를 담아서 먹었다. 배추는 현지 시장이나 일본 슈퍼마켓에서 구입할 수 있었지만 포기가 작고 잎이 얇고 힘이 없었고, 무는 쓰고 심이 든 것이 많아서 조리법을 약간 변형해서 먹었다. 예를 들면, 배추는 살짝만 절이고, 무는 소금과 설탕으로 절여서 씻은 후 사용하거나, 아예 덜 익어서 과육이 단단한 파파야를 무 대신 쓰기도 했다. 젓갈도 현지에서 새우와 오징어를 사서 직접 만들기도 했고, 현지에서 판매하는 피시소스(fish sauce)를 사용하는 등 창의력을 발휘했다.

1980년대부터 한국에서 봉제와 신발, 전자 같은 노동집약산업들이 진출하면서 한인 수가 늘어남에 따라 한국슈퍼가 생기고 한국식품 공급이 늘었다. 1990년대부터는 자카르타 근교에서 한국 중자로 재배한 배추들이 판매되기 시작했다. 지금도 이유는 모르지만 이틀씩 절여도 숨이 죽지 않는 배추도 있었다. 이 시기에는 한국인에게 배운 인도네시아인들이 한국음식을 만들고 김치를 담기 시작했다.

2000년대 초반에는 김치를 한국에서 가져가는 사람이 늘었다. 항공물류가 발달하면서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 쉬워진 영향이다. 2010년대에는 한국산 배추와 무 이어서 절임 배추, 한국산 김치, 김치냉장고까지 수입됐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내에서 김치를 담가서 파는 사람도 생겼다. 현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늘면서 배추와 무, 고추가루 등을 현지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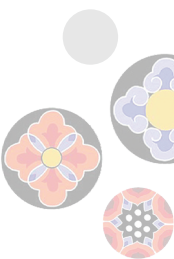
한식홍보 김장김치 담그기 체험

어느 순간 한국 슈퍼마켓만이 아니라 일본 슈퍼마켓과 인도네시아 슈퍼마켓에서도 현지에서 생산한 김치와 한국에서 수입한 김치를 모두 구입할 수 있게 됐다.

한국 기업과 한국인의 활동과 현지 한식당은 김치와 한식을 인도네시아인에게 소개하는 계기가 됐고, ‘대장금’을 비롯한 한국 드라마의 영향과 한국 정부의 한류 콘텐츠 홍보, 사스(SARS) 사태 당시 김치가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보도 등이 합쳐지면서 김치는 더욱 확산된다. 인도네시아에서 김치는 한국인이 시작했지만 이제는 인도네시아인과 다른 외국인들에게 스며들고 있다.

김치는 한국인이 가는 모든 곳에서 여러 형태로 현지화를 한다. 인도네시아에서 김치는 비건(Vegan, 채식주의) 식품이자 할랄(무슬림에게 허용되는 음식) 식품으로 발전했다. 인도네시아 고급 슈퍼마켓 비건 또는 오가닉 식품 코너와 발리 비건식품점에 가면 예쁜 병에 든 김치를 볼 수 있다. 김치를 담그는 사람도 한국인에서 인도네시아인을 포함한 외국인으로 넓어졌다.

김치는 이제 한국인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인에게도 사랑받는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앞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현지인들이 직접 만드는 김치가 더 많아질 것이다. 재료도 방법도 무한대로 확장할 가능성이 있는 음식이 김치이다. 우리가 가족이나 공동체에서 생활하며 축적한 스토리를 인도네시아인들은 드라마 같은 한류 콘텐츠로 축적한다. 어쩌면 김치는 사람보다 더 경계가 없는 존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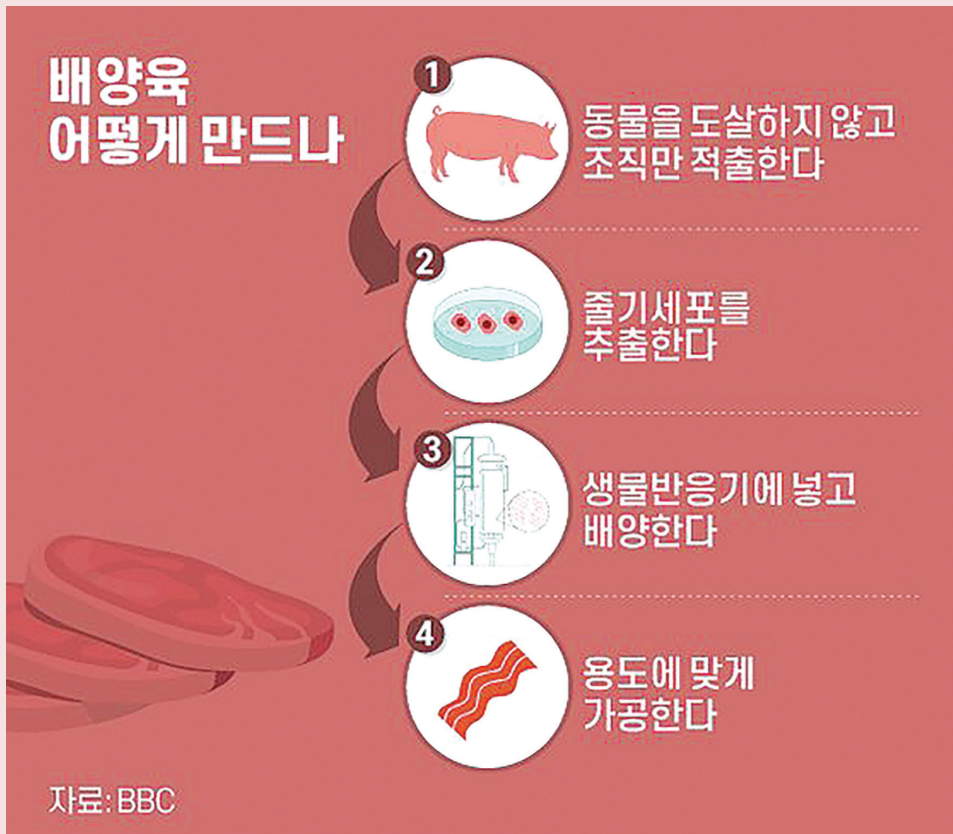
드라마 속 바이오 기술 VS 현재의 바이오 기술

최규식(학생기자 JKKS, 12학년)

얼마전 한 드라마의 홍보 영상이 나의 시선을 끌었다.

그 드라마는 화려한 연기력의 출연진도 없었고, 이미 호평이 난 작가의 스토리도 아니었다. 그저 ‘인공 배양육’을 소재로 삼았다는 것만으로 나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다. 왜냐하면 나의 관심 분야가 생명 분야이고, 생명 또는 바이오에 관련해서는 장르를 불문하고 나의 시간을 투자하기에 아깝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드라마의 간략한 소개를 하고자 한다.

한 생명공학 기업이 세계 최초로 인공 배양육을 상품화하는데 성공시킨 이야기이다. 참치, 연어, 육고기, 곡류에 이르기까지 배양을 해서 시장에 진출하게 된다. 이는 환경 보호를 위한 엄청난 혁신이었다. 먼 미래가 아닌 시대적 배경으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된 AI를 활용한 모습이나 나의 관심 분야인 생명과학의 이야기였기에 나는 정말이지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브라운관 속으로 빠져들듯이 보았던 것 같다. 보는 내내,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내가 만든 생명 관련 동아리에서 부원들과 여러가지 실험을 했던 모습들이 떠올라 브라운관 속 영상에 오버랩 되기도 했다. 드라마를 보면 잘생기고 예쁜 배우에 초점을 맞춰 보았던 나였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던 나의 모습에 내가 생명 분야에 이렇게까지 관심이 많았었나 하고 스스로 적잖이 놀라기도 했다.



그렇다면 현재의 바이오 기술은 어디쯤 와 있을까?

인류의 존망을 크게 위협하는 문제, 즉 환경오염으로 식량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로 주목받는 바이오 기술의 잠재성을 먼저 알아보았다. 현 시점 바이오 기술은 생물학과 공학을 융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 기업들은 연구 및 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농업에 바이오 기술을 접목한 ‘그린바이오’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바이오 사료 등 미래 먹거리 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생명공학 제품의 대표적 예인 미생물 농약을 화학물질 대신 미생물을 이용해 만든 농약으로 잔류농약 걱정 없이 해충을 방지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이라고 한다.

판타지라 여겨졌던 드라마 속 소재였던 인공 배양육은 이미 동물세포를 이용한 배양육과 함께 생선의 근육조직으로부터 줄기세포를 채취하여 배양해 만든 배양 생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누구나 알다시피 전 세계는 환경오염, 건강에 유해한 먹거리 등이 인류에게 다양한 측면으로 위협되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러므로 대체육의 가치는 두 말 하면 잔소리일 거다. 이러한 개발과 노력이 빠른 결실을 맺고 대중화되어서 멀지 않은 미래의 식탁이 친환경적이고, 모든 인류가 무병장수할 수 있게 되길 바라본다. 또한 아직 어린 나이지만 나의 관심 분야로 진로를 선택해 더 많은 지식을 얻고 연구 활동에 참여하여 인류를 위해 나의 작은 힘을 보태고 싶은 바람이다.

반둥 베이커리 파티세 냥이의 묘생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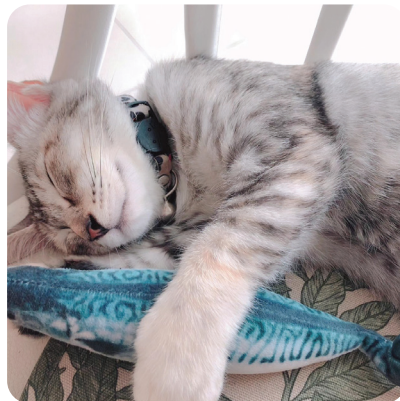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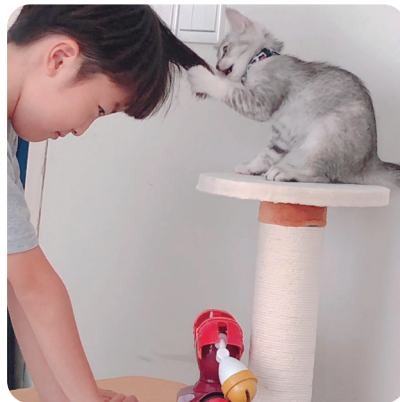
이름: 짱아

나이: 3살(2021년 2월생, 여)

성격: 하악질 한번 하지 않는 순둥한 성격이지만,
절대 품에 안기지는 않는 밀당녀

집사: 김소정(반둥 거주)

짱아는 다른 집사님에게서 분양 받으면서 우리 둘째 아이 목소리가 짱구 같다해서 짱아로 붙여진 이름이에요.



이제 들들...

품에 잘 안기진 않지만 엄마 발 꼬랑내는 참 좋아해요.



집사야 만져라!



이거지...



베이킹 하는 엄마 때문에 몇 군데 금지 구역이 있어요.
주방, 식탁, 침대 등 금지 구역이 너무 많아 활동이 제한되 있지만, 기특하게도 “안돼!” 소리만 들으면 접근하지 않아요.

나름 똑똑기 냥이랍니다.

짱아와 건강히 오래오래 함께 하고 싶어요.

주문은 여기서
인스타 아이디 sojeong0808
0812 1253 2796

한국-인도네시아 우정의 50년 여정 (7)

2) 인도네시아 한인 1호 장윤원과 자녀들

인도네시아에 사는 한인들은 장윤원을 인도네시아에 정착한 최초의 한인으로 추대하고, 그가 도착한 날을 인도네시아 한인 역사의 시작일로 기념한다. 장윤원은 일제 패망 후 조선인 포로감시원 구명 운동과 민간인 귀환을 도왔고, 그의 자녀인 장남해와 장평화는 1970년대에 인도네시아에 온 한국인의 정착을 돕는 가교 역할을 톡톡히 했다.

장윤원(1883~1947년)은 일본강점기에 조선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다가 일제 탄압을 피해 중국을 거쳐 네덜란드령 동인도(현 인도네시아)에 망명했다. 1920년 9월 바타비아(현 자카르타)에 도착한 이후 1947년 사망 시점까지 27년 간 인도네시아에 살았다. 네덜란드령 동인도 총독부의 고위관리이던 안젤린(de Kat Angeline)의 권유로 인도네시아로 온, 그는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고 조선의 일본은행에서 근무할 정도로 일본어가 유창해서 네덜란드 총독부의 일본어 통역고등문관으로 일했다. 이듬해 장윤원은 중국계 인도네시아인 황향아와 결혼해 남해, 창포, 망기, 순일, 평화 등 2남 3녀를 두고, 안정적인 삶을 꾸리는 듯했으나, 인도네시아가 일본에 정복당하면서 다시 고초를 겪는다. 인도네시아를 점령한 일본군은 그를 체포해 고문과 구타를 하고 자카르타 글로독 형무소에 수감한다. 그는 일본 패망 후 자신의 귀국조차 미루고 조선인 포로감시원 구명운동과 민간인 귀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닌다.

하지만 장윤원은 고문 후유증과 수형생활로 악화된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1947년 11월 23일 자카르타에서 사망한다.

장윤원이 인도네시아에서 결혼해 낳은 자녀 중 한 사회에 기억되는 인물은 세 명이다. 장남 장남해(1921~?)는 부친 장윤원과 함께 일본 헌병에 체포돼 고초를 겪었다. 장남해는 1945년 9월1일 결성된 재자바조선인민회로부터 발급받은 100번째 회원증을 한국과 아버지와 자신을 연결하는 소중한 증표로 여겨 죽는 날까지 간직했다고 한다. 그는 1980~1990년대에는 건설 업종으로 진출한 한국 기업의 현지인 파트너로 활동하기도 했고, 자카르타 한인 가톨릭 공동체에 참여하면서 한인들의 정착과 한인성당의 설립을 안내하고 지원했다.



장윤원 가족



글: 신성철(<우정을 엮어 신뢰를 쌓은> 저자)

차남 장순일(1927~1995년)은 인도네시아에 큰 기여를 한 인물로 기억된다. 그는 네덜란드에서 유학할 당시 ‘재네덜란드 가톨릭대학생 연합회’를 조직해 초대 회장을 역임했고, 귀국 후 1960년 6월1일에 가톨릭 유학생들과 공동으로 가톨릭계 대학교인 아트마자야대학교(Universitas Atmajaya)를 자카르타에 공동으로 설립하고, 공대학장과 건축본부장을 역임하며 자카르타 스망기 캠퍼스와 뿔루잇 소재 대학병원 등을 건축해 현재의 캠퍼스 골격을 세운다. 로마 교황청은 이 공로를 인정해 1990년에 아트마자야대 개교 30주년 기념 행사에서 민간인에게 주는 최고 훈장인 ‘실버메달’ (Equitem Commendatorem Ordinis Sancti Silvestri Papae)을 장순일에게 수여한다.

셋째 딸인 장평화(1942~2016년)는 국립 인도네시아대학교(UI) 영문과를 졸업하고 대학 조교로 근무하면서, 한국대사관 직원 가족들에게 인도네시아어를 가르쳤다. 이어 1960년대 말에 설립된 한국총영사관에서 비서로 근무했다. 1971년 김좌걸 총영사의 배려로, 장평화는 한국을 방문해 친척들과 만나기도 했다. 1974년 3월에 장평화는 한국인 여한중과 자카르타 시내 성마리아대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여한중은 외무부(현 외교부)에 채용돼,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했고, 주파푸아뉴기니 대사를 끝으로 정년퇴임 후 귀국한다. 장평화는 남편을 따라 한국에 귀국해 한국에서 여생을 마친다.

3) 조선인 포로감시원

1942년 일본이 강제로 징집해 파견한 조선인 약 1,500여명이 자카르타 판중쁘리옥 항구에 도착한다. 일본은 태평양전쟁에 나서며 인도네시아까지 전선이 확대되고 억류한 연합군 포로(와 그 가족)의 수가 26만 명을 넘어서자 이들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위해 1942년 3월에 군사목적(군인, 군속, 군위안부, 노무자 등)으로 식민지 조선과 대만에서 강제동원한 민간인 약 5,000명을 동남아시아 전역의 포로수용소에 파견했다. 이때 동원된 조선인 3,000여명 중 약 1,500여명이 자바섬 자카르타, 반둥, 쥘라잡, 수라바야, 스마랑 등의 포로수용소에 배치되어 포로감시와 노역업무를 했다. 애초 포로 감시원은 2년 연한의 계약직 군속 신분이었으나, 일제가 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무기한 근무를 강요했다. 반둥에서 포로감시원으로 근무한 안승갑 선생은 생전에 일본이 조선인 군속들에게 약속한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강제로 저축하게 하고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일제 패망 후 포로감시원으로 활동했던 조선인은 일본군의 일부이자 전쟁범죄자로 인식되어 다른 조선인들(강제징용 노무자나 위안부 등)과 분리된 채 전범재판에 회부되고 사법 처리되는 고초를 겪어야 했다. 전범 혐의에서 벗어난 이들도 고국 귀환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다. 대부분 수용소에서 굶주림과 풍토병에 시달리다가 네덜란드에

저항한 인도네시아의 독립전쟁이 종식된 후 싱가포르와 일본 등지를 거쳐 어렵게 조선 땅으로 돌아왔다.

4) 군위안부

당시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한 일본군 군속들의 증언과 2009년 발간된 『인도네시아 동원여성명부에 관한 진상보고서』에 따르면, 자카르타에 있던 제6위안소(현 보로부두르 호텔 인근)에 조선인 출신 여성 7명이 있었고, 동부자바주 수라바야 지역에도 조선인 여성 위안부가 있었다. 일본군이 주둔했던 수마트라뿐 아니라 깔리만판, 술라웨시, 암본 등 인도네시아 동부 지역에도 조선인 위안부의 흔적이 남아있다. 해방 직후 귀국선을 타기 위해 「재자바조선인민회」에 집결한 조선인들은 포로감시원과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민간인 그룹 중 여성들은 군위안부 출신, 또는 일본군에 의해 간호사로 위장된 군위안부들이 포함되었다.

위안부 피해자 정서운(1924~2004년)은 ‘애국봉사단’에 입단하라는 이장의 권유에 넘어가 1938년에 중국 광둥성을 거쳐서 자바섬 스마랑으로 끌려갔다. 정서운은 성노예 위안부를 부정하는 일본 정부 앞에 “내가 스마랑 암바라와 지역의 일본군 위안부”라고 직접 반박했다. 정서운은 함께 끌려온 여성 13명 중 6~7명 즉 절반만 종전 후까지 살아남았으며, 일본이 패망한 후 싱가포르를 거쳐 1946년 4~5월경 부산항을 통해 귀국했다. 암바라와 군위안소는 현재는 인도네시아 정부 소유한 전쟁유적지이지만 70년 이상 방치되어 있다.



사진. 조선인 포로감시원들 [출처: 연합뉴스]

5) 고려독립청년당과 항일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은 한인이 거주하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나 전개되었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조선 독립운동이 이루어졌다. 자바의 조선인 군속 총 16명이 1944년 12월 29일 자카르타에 모여 이억관(본명 이활 1907~1983)을 중심으로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따르는 항일 비밀결사체 고려독립청년당 설립을 결의했다. 고려독립청년당은 ‘암바라와 거사’를 행하고 일본군의 수송선 스미레마루호 탈취 계획’을 세우고 시도했다. 조선

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이들은 인도네시아 독립을 위해 항일투쟁을 벌이던 인도네시아 민족주의자들과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과 협력하기도 했다. 고려독립청년당 반동 지구당의 당원이자 일본군 포로감시원이었던 김두삼과 안승갑은 중국계 인도네시아인 포로인 정지춘(鄭志春)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으며 활동했다.

1945년 1월 5일 중부자바주 암바라와에 있던 「자바포로수용소 및 억류소 스마랑 제2분견소」에서 고려독립청년당 당원인 손양섭, 민영학, 노병한 등 세 명은 일본군의 트럭과 무기를 탈취해서 일본군인과 협력자들을 사살하는 ‘암바라와 거사’를 일으킨다. 세 사람은 일본군에 추격을 당하자 도피했다가 자살로 마무리한다. 민영학이 자살했던 옥수수밭은 현재 논으로 바뀌었고, 손양섭과 노병한이 자살한 당시 창고는 암바라와 성요셉성당 뒤편에 위치해 있다.

고려청년독립당은 1945년 1월 8일 일본군 수송선인 스미레마루호 탈취 계획을 세우고 자카르타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던 영국군과 네덜란드군, 인도네시아인 장교들과 공모하지만 사전에 적발되어 실패한다. 1945년 7월 일본군에 체포된 고려독립청년당원 10명은 군사법정에서 징역을 선고 받고 수감생활을 하다가 종전 후에 석방된다. 하지만 다시 연합군에 체포되어 전범 조사를 받고 중노동과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1947년에야 귀국한다. 한국 정부는 2011년 11월에 자바에서 조선인 포로감시원들이 벌인 항일투쟁을 해외에서 벌인 항일독립운동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또한 2008년에 암바라와에서 사망한 민영학, 손양섭, 노병한 등 3인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2011년에는 고려독립청년당 총령인 이억관에게 건국훈장 애족장, 이상문, 김현재, 문학선, 박창원, 임현근, 조규홍 등 당원들에게 「건국훈장포장」을 수여했다.



사진 암바라와 군위안소 유적 [출처: 한인뉴스]

불법행위(Perbuatan Melawan Hukum/PMH)(I)

인도네시아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 우스갯 소리로 “Keranjang Sampah(쓰레기 통)” 이라고 불리는 법률 조항이 몇 개 있다. 민법 제 1365 조, 형법 제 335 조 및 출입국 관리법 제 50 조 등이다. 민법 제 1365 조를 걸어 소송을 걸거나, 형법 제 335 조를 걸어 입건시키거나, 출입국 관리법 제 50 조를 근거로 출입국 관리법 위반혐의로 걸면, 불법행위 혐의로 걸리지 않을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귀에 걸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는 조항이라는 뜻에서 “쓰레기통 조항” 이라고 부르고 있다. 소위 “All catches” 조항들이다. 민법 제 1365 조는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손해를 당한 사람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 335 조는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한 자는 최고 1(일)년 징역형 혹은 최고 Rp.4,000.- 벌금형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출입국 관리법 제 50 조는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허가해준 체류 허가목적과 다르게 체류한 외국인은 최고 5(오) 년 징역형 혹은 최고 Rp.25,000,000.- (이천 오백만 루피아)의 벌금형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법 혹은 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고의로 위반했거나 과실로 위반했거나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되며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형법이나 공법의 형벌 조항을 어긴 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사법의 조항을 어긴 사람은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불법행위의 범위

종전에는 법규에 하도록 되어 있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행위를 한 경우를 불법행위로 규정, 즉, 불법행위를 혐의로 규정했으나 지금은 법규에 정해진 사항을 어긴 불법행위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사회의 보편타당성이 있는 기준(Kepatutan)을 어긴 행위, 법령에 규정

하고 있지 않으나 사회 미풍양속을 어긴 행위 등도 불법행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불법행위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늘어나고 있다. 소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송청구 이유가 불법행위(PMH)인지 계약위반(Wanprestasi)인지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

2.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사람의 행위가 다음 사항에 해당되면 불법 행위 성립 요건에 해당된다.

가. 행한 행위가 법규에 저촉된다.

민법은 인간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거의 모든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죽은 사람의 유산 처리 방법도 민법에 규정하고 있다.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 하라고 규정된 사항을 하지 않아도 불법행위에 해당되며, 하지 말라고 규정된 사항을 해도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2,000 여 조항에 이르는 민법뿐이 아니고, 헌법, 상법, 형법, 주식회사법, 세법, 관세법, 토지법, 건축법, 아파트법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법률, 긴급조치법, 정부령, 대통령령, 장관령, 청장령, 주조례, 시/군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어기면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

자동차를 운전해 가다가 사람을 치인 경우에 고의가 없을지라도 운전 부주의 과실로 불법행위를 행하였기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되며, 피해자에게는 손해 배상 청구권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법규에 명시된 불법행위일지라도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 배상 청구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예” 를 들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발언을 한 경우에, 그 발언으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는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기분을 나쁘게 했다고 꼭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위법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나 물적 증거물이 있어서 손해 배상 소송을 청구했을지라도 손해에 대한 입증은 그렇게 용이한 일이 아니다.

다.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고의란 자기가 행할 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행한 것을 의미하며, 과실이란 일정한 사항이나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해 사항이나 사실을 발생하게 한 경우를 뜻한다. 형사에서는 고의만을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과실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시키고 있다. 그러나 민사에서는 고의이거나 과실이거나 상관없이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3. 불법행위의 법적 효과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 1365 조). 피해자의 재산권 혹은 인격권을 배상해야 한다. 민사에서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권리와 의무의 관계인 계약 관계로 보고 있으므로, 민사상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 자는 민사 계약을 어긴 것처럼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의 경우와 비슷하다. 따라서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나,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우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예”를 들면 신문에 사과 광고 혹은 원상회복 등을 명할 수 있다.

4. 손해 배상의 범위

불법행위가 민법상의 해야 할 사항을 하지 않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사항을 했거나 주어야 하는 것을 주지 않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의 범위를 비용, 손해 및 이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명

예 훼손의 경우에는 손해 배상과 명예 회복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비용이란 어떠한 사항이나 사실이 발생시킬 때까지 지출된 실제적인 금전 지출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유명 가수와 계약하고 음악쇼를 하기 위하여 장소와 설비를 임대하는데 지출된 비용, 스테이지 제작비, 광고비, 인건비 등 음악쇼 준비에 들어간 비용 등이다. 손해란 유명 가수가 약속 시간에 출연하지 않아서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 즉 입장료 손해와 음악쇼 도중에 광고를 내어 보내 광고주로부터 받기로 되어 있는 광고료를 받지 못한 공고료 손해를 뜻하며, 이자란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청구한 날로부터 완전하게 손해 배상을 받는 날까지의 손해 배상 청구 총액에 대한 이자를 의미한다. 이자율의 기준은 민법에서는 연리 6%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그 이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국세 혹은 지방세 체납의 경우에 법정 체납 이자율이 월 2%로 되어 있는 등 이유를 들어 실제 월 2% 청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명예 훼손의 경우에는 정신적인 피해이며 피해의 기준이 상당히 주관적인 점 때문에 금전 피해 배상 판결은 상당히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5.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민법 제 1245 조는 불가항력의 상황에서 저지른 불법행위는 비용, 손해 및 이자를 배상하지 않아도 좋다는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자신의 생명, 정조 혹은 안전을 위해 불가항력의 상황에서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비용, 손해 및 이자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면 권총강도를 만난 택시운전기사가 과속으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면책조항에 해당된다. 그러나 1997. 7. 하순에 발생한 환란(Foreign Exchange Fluctuation) 같은 사건은 불가항력으로 받아드려지지 않으며 환란으로 인한 불법행위는 가해자는 피해를 당한 자에게 손해를 배상의무가 있다.

(다음 호에 계속)



7 Bulan, 미토니(Mitoni) 의식

사공 경(한인니문화연구원 원장)

일 상생활 어디에서든 전통 바틱을 즐겨 입는 인도네시아인들 속에 살다가 한국에서 전철을 타면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다. 한국을 상징하는 옷이나 소품을 착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모두가 효율성을 강조하는 서양 옷을 입고 있다. TV 뉴스에서 보는 장면에서도 그렇다. 중동 쪽 정상이나 내빈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모두 그들의 전통의상을 입고 있다. 우리는 왜 모두 서양 옷을 입고 있을까. 바틱처럼 한국의 고유문양에는 철학적인 의미가 가득한데...

인도네시아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바틱으로 감싼다. 죽고나서 시신을 장지까지 운반할 때도 바틱으로 감싼다. 그래서 바틱 전문가 아구스(Agus) 선생께 “요람에서 무덤까지 바틱과 함께 하는군요.” 라고 말했더니 “아닙니다. 태어나기 전부터입니다.” 라고 힘주어 말하면서 미토니(Mitoni) 의식에 대해 말해 주었다. 민속촌(Taman Mini)에 있는 인도네시아 박물관에서 모형으로 만들어진 미토니 의식을 본 기억이 났다.

미토니(Mitoni) 의식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미토니(Mitoni) 의식은 Tingkeban 의식이라고도 불린다. Tingkeban 전통은 임신 7개월을 기념하기 위해 자바 사람들이 행하는 의식이다. 이 자바 전통 의식은 합심 기도와 성수 뿌리는 행렬도 함께 진행된다. 자바인들은 천사들이 낮에 목욕하러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믿기 때문에 임산부들은 낮에 몸을 씻고 준비를 한다. 그 다음은 브로졸란 행렬로, 즉 자릭(Jarik: 아기를 안을 때 사용하는 천) 안으로 Ayam Kampung 알을 넣은 후에 산도를 여는 상징으로 레트렉 끈을 자른다. 이것은 출산을 의미한다. 다음에는 한 쌍의 털 익은 끌라빠 가당(상아 코코넛: 코코넛의 한 종류인데 주황색) 열매를 임산부의 배 위에서 사롱으로 넣는다. 그 후에 임산부는 일곱 번 천을 갈아입는 행렬이 있다. 어른들이 임산부에게 주는 일곱 가지 다른 문양 천으로 끄벤(Kemben, Tube top) 또는 자릭(Jarik)을 걸친다. 모든 과정이 완료되면 루작을 곁들여 함께 식사하며 미토니 행사를 종료한다. 임산부는 서로 다른 문양의 7개의 바틱 천을 번갈아 사용한다. 때로 루릭 천을 사용하기도 한다.

미토니(Mitoni) 의식에 사용되는 바틱문양은?

자바 미토니(Tingkeban) 전통 의식의 물보라 행렬에는 아래의 12개의 자바 바틱 천 문양을 사용한다.



1. **Batik Wahyu Tumurun:** 태어날 아기가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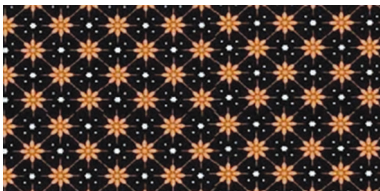
2. **Batik Sido Asih:** 사랑과 애정을 의미하는 Asih처럼 태어날 아기가 언제나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연민을 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이다. 이 바틱은 착용자와 주변 환경에 평온함을 주는 사랑의 상징이다.

전통적인 자바 결혼식에서는 신부와 신랑이 첫날밤에 시도 아시(Sido Asih) 바틱을 사용한다. 시도 아시를 입음으로써 신랑신부가 화목한 부부가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이다. 식물이나 나뭇잎 문양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시도 아시는 수라카르타(솔로)와 족자카르타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점이 있다. 솔로 스타일 특징은 다이아몬드 문양이 사용되며, 족자는 봄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문양이 있다. 새의 날개를 변형한 흰색 배경에 덩굴 식물이 활짝 피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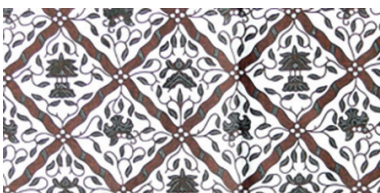


3. **Batik Sido Mukti:** 태어날 아기가 Mukti Wibawa, 즉 권위가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문양은 마타람 카르타수라(Mataram Kartasura)에서 유래되었으며 흰색 배경에 소간 브라운(Sogan Brown)색상이 더욱 두드러지는 Sido Mulyo 모티프를 발전시킨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 문양은 Siraman, Kerikan, Ijab 및 Panggih 의식에서도 신부와 신랑이 착용한다. 나비와 날개, 용맹과 화려함을 상징하는 메루 또는 산, 아름다움의 상징인 꽃, 높은 지위를 상징하는 왕좌가 있다.



4. **Batik Truntum:** 태어날 아기가 부모처럼 고귀함을 갖게 된다는 의미이다. 또한 부모는 아기에 대해 지나친 관대함을 경계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5. **Batik Sido Luhur:** 태어날 아이가 예의 바르고 덕망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담고 있다. 착용자를 위한 기도와 희망은 승고하며, 이는 영혼의 위대함을 가진 롤모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시도 루후르 바틱을 입는 사람은 명예와 위엄을 얻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타람 왕국의 창시자인 세노파티의 할아버지인 키 아궁 헤니스(Ki Ageng Henis)가 그의 후손들이 고귀한 영혼을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이 문양을 창시했다고 한다. 이 문양은 미토니 의식 외에도 결혼 첫날밤에 신랑 신부가 사용하기도 한다.

6. Batik Parang Kusumo: 아이들이 검(Keris) 문양처럼 날카로운 지능을 가지고, 검을 사용하는 강력한 전사와 같은 손재주를 갖게 되는 바람을 담는다. 태어나는 아이들은 부모의 존엄성을 지키고 가족의 명예를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mikul duwur mendhem jero’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미이다.



7. Batik Semen Romo: 태어날 아이가 라마와 신파처럼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서로에 대한 사랑의 감성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8. Batik Udan Liris: 태어날 아이가 이 이슬비(가랑비) 문양처럼 그와 어울리는 모든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해 주고 경쾌하고 기쁘게 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바람을 담고 있다. 다산과 풍요한 삶을 누리기를 바란다는 의미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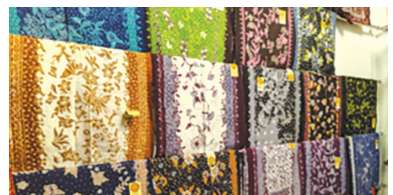
9. Batik Cakar Ayam: 태어난 아이들이 생계를 잘 꾸리기 위해 마치 발톱으로 먹이를 찾는 닭과 같이 부지런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녀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으로 그들의 필요가 충족되기를 바란다는 뜻이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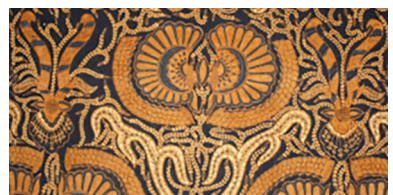
10. Batik Grompol: 부조화로 인해 가족이 분열되지 않고 단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바어로 Grompol, 즉 모임의 의미와 같다.



11. Batik Lasem: 이 천에 있는 수직선 문양처럼 아이들이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곧은 길을 가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12. Batik Babon Angrem: 이 문양은 암탉 무리를 의미한다. 아이가 결코 부족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문양을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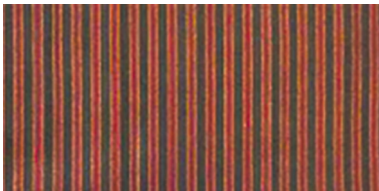


미토니(Mitoni) 의식에 사용되는 루릭(Lurik) 문양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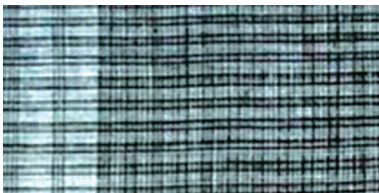
Lurik이라는 단어는 줄무늬 또는 선을 의미하는 고대 자바어 ‘lorek’ 에서 유래되었다. 또한 착용자를 위한 울타리 또는 보호로 해석되는 선이나 도랑을 의미하는 ‘rik’ 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1. Lurik Dringin: 태어날 아이가 타인과 잘 어울리고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을 의미한다. Dringin 천 모티브는 가로 또는 세로로 되어 있어 아이들이 폭넓게 사교할 수 있기를 바라는 의미이다.



2. Lurik Kluwung: Kluwung은 자연의 기적이자 신의 위대함을 상징하는 무지개이다. 자바 사람들은 이 천은 침입자를 물리칠 수 있다고 믿는다. 넓은 스트라이프 문양이 무지개처럼 다양한 컬러로 펼쳐져 있으며 아기 미토니 의식 뿐만 아니라 향만 의식에도 사용된다. 또한 신랑 신부가 가정의 안전과 행복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베개 밑에 넣어두기도 한다.



3. Lurik Tumbur Pecah: Tumbur Pecah은 깨진 고수풀이라는 의미이다. 고수풀은 향신료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재료이다. 아기를 낳는 과정이 고수를 꺾듯이 쉽게 이루어져 엄마와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한 아이로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평끄반(미토니), 즉 임신 칠월 의식에 사용된다. 고수풀과 같이 유용하며 으깬 고수풀의 향기와 같은 향기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고 있다.

미토니 의식은 고통 없는 출산을 위한 의식이며, 또 아이는 성별 상관없이 남자든 여자든 기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미토니 의식을 통해 임신부(산모)를 존중하고 남녀평등을 지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인간 존엄성을 말한다.

바틱을 즐겨 입는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즐겨 입는 게 아니라 ‘바틱은 곧 인도네시아’이기 때문이다. 1990년대 중반 서점에서 “바틱, 자바의 영혼”이라는 책을 보고 전율을 느꼈다. 맞아~~. 영혼이야. 2009년에 바틱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무렵부터는 “바틱은 인도네시아인들의 정체성”이라고 말을 하곤 했다. 그러다가 2016년 한세에스24문화재단 초청으로 가나인사아트에서 전시할 때는 주저없이 전시 제목으로 “바틱, 인도네시아의 영혼”이라고 했다. 나의 인사말 제목은 “바틱, 느린 영혼의 여행”이었다. 이제는 주저없이 “바틱은 곧 인도네시아다.”라고 말한다.

2024 임원외비 납부명단

기준 : 2024.1.1 ~ 2024.6.27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금액(US\$)	비고
1	회장	박재한	JAVA PALACE HOTEL	20,000	
2	명예회장	신기엽	PT. HANINDO EXPRESS UTAMA	10,000	
3	명예회장	양영연	PT. TAEWON INDONESIA	10,000	
4	고문	김우진	PT. SAMINDO ELECTRONICS	5,000	
5	고문	김준규	PT. CIPTA ORION METAL	5,000	
6	부회장	강선학	PT. ALPHA TOY INDONESIA	5,000	
7	부회장	김문수	PT. QUTY KURNIA	5,000	
8	부회장	김창곤	KODECO ENERGY CO LTD	5,000	
9	부회장	박상갑	PT. VIDEX INDONESIA	5,000	
10	부회장	박성대	PT. HANJIN INDONESIA JAYA	5,000	
11	부회장	양태화	PT. BOSUNG INDONESIA	5,000	
12	부회장	오인택	PT. BANK IBK INDONESIA TBK	5,000	
13	부회장	이우열	PT. BANK BUKOPIN TBK	5,000	
14	부회장	이정호	PT. HEONZ ROYAL JAYA	5,000	
15	부회장	이종남	PT. SINYOUNG ABADI	5,000	
16	부회장	정용완	PT. HUNG A INDONESIA	5,000	
17	부회장	하재수	PT. ROYAL PUSPITA	5,000	
18	자문위원장	구종율	PT. JASINDO DUTA SEGARA	2,000	
19	자문위원	길병완	PT. DAEYOUNG DUNIA SUBUR	1,000	
20	자문위원	김소웅	PT. SCI	1,000	
21	자문위원	김영만	PT. BATAVIA CHEMTEK	1,000	
22	자문위원	김영욱	PT. GAYA INDAH KHARISMA	1,000	
23	자문위원	김주철	PT. STAR CAMTEX	1,000	
24	자문위원	김태화	PT. EEN STEEL INDONESIA	1,000	
25	자문위원	김희익	PT. EPS INDONESIA	1,000	
26	자문위원	석웅치	PT. DAYUP INDO	1,000	
27	자문위원	염정호	PT. ING INTERNATIONAL	1,000	
28	자문위원	오세명	PT. SUNGLIM CHEMICAL	1,000	
29	자문위원	이종현	PT. LEO KORINSIA	1,000	
30	자문위원	이진호	PT. JIN YOUNG	1,000	
31	자문위원	조규철	PT. DONG JUNG INDONESIA	1,000	
32	자문위원	채만용	PT. CITRA BINA MAJU JAYA	1,000	
33	이사	강병찬	PT. GLOBAL INDOREKSA ASIA	1,000	
34	이사	강수한	PT. CHAEUM DESIGN	1,000	
35	이사	김경곤	PT. SUKWANG INDONESIA	1,000	
36	이사	김민규	PT. WOORI CONSULTING	1,000	
37	이사	김영율	PT. SUNG CHANG INDONESIA	1,000	
38	이사	김형근	PT. GAYA INDAH KHARISMA	1,000	
39	이사	김호권	PT. SUNSHINE TECHNICA INDONESIA	1,000	
40	이사	김화룡	PT. BANGUN MAJU LESTARI	1,000	
41	이사	남궁훈	PT. HANWA LIFE INSURANCE INDONESIA	1,000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금액(US\$)	비고
42	이사	박광률	PT. SHINWOO GLOBAL INDONESIA	1,000	
43	이사	박영진	PT. JUBIT CONSULTING INDONESIA	1,000	
44	이사	박주상	PT. TOU RUBBER INDONESIA	1,000	
45	이사	백상현	PT. CKD OTTO PHARMACEUTICALS	1,000	
46	이사	손석기	PT. PERKASA INDAH MAKMUR	1,000	
47	이사	신호진	PT. HANINDO EXPRESS UTAMA	1,000	
48	이사	안창섭	PT. PETRASAKTI MADYATAMA	1,000	
49	이사	양시완	PT. KISWIRE INDONESIA	1,000	
50	이사	오동훈	PT. FNS TRANSBUANA	1,000	
51	이사	유용선	PT. DAEHWA INDONESIA	1,000	
52	이사	이상일	PT. UNGARAN INDAH BUSANA	1,000	
53	이사	이성삼	PT. LSS (LIGA SEJATI SEJATRA)	1,000	
54	이사	이승수	PT. SINYOUNG ABADI	1,000	
55	이사	이옥찬	PT. KORINA SEMARANG	1,000	
56	이사	이지완	PT. JIN YOUNG	1,000	
57	이사	이철훈	PT. INDO BOX UTAMA JAYA	1,000	
58	이사	이한주	PT. SAJI SEGAR LESTARI	1,000	
59	이사	장영관	PT. LAYCO	1,000	
60	이사	정상봉	PT. DAESANG INGREDIENTS INDONESIA	1,000	
61	이사	조용재	PT. SUNG CHANG INDONESIA	1,000	
62	이사	최재희	PT. STONE CANYON INDONESIA	1,000	
63	이사	최제동	PT. CMS CHEMICAL INDONESIA	1,000	
64	이사	최태립	PT. INT. TOTAL SERVICE & LOGISTICS(ITL)	1,000	
65	이사	홍기호	PT. AURORA WORLD CIANJUR	1,000	
66		NO NAME	-	1,000	2024.2.12

2024 개인외비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납부 명단

※ 기준 : 가나다순

번호	성명	금액(IDR)	번호	성명	금액(IDR)	번호	성명	금액(IDR)
1	최석일	300,000	13	안진호	300,000	24	NO NAME	500,000
2	NO NAME	300,000	14	정사무엘	300,000	25	이순형	600,000
3	채만용	300,000	15	최혜진	300,000	26	NO NAME	500,000
4	김영경	1,000,000	16	김대근	300,000	27	NO NAME	500,000
5	NO NAME	500,000	17	김창근	300,000	28	오세명	300,000
6	정순	300,000	18	김성구	300,000	29	이송용	300,000
7	김규리	300,000	19	김태원	300,000	30	이현용	300,000
8	김경희	300,000	20	이상일	300,000	31	김혜아	300,000
9	사공경	300,000	21	최인실	300,000	32	차신우	300,000
10	엄강심	300,000	22	홍석영	300,000	33	NO NAME	500,000
11	김희순	300,000	23	이은진	300,000	34	NO NAME	500,000
12	석웅치	300,000						



긴급전화번호

경찰	POLICE (Polisi)	112
범죄 및 도난 신고		110

소방서 (화재신고)	FIRE BRIGADE (Dinas kebakaran)	113
---------------	-----------------------------------	-----

응급차	AMBULANCE (Ambulan)	118 119
-----	------------------------	------------

민간구급차 서비스	PRIVATE AMBULANCE SERVICES	(021)7506001 =International SOS (24시간대기)
--------------	----------------------------------	--

■ 전화번호 안내

시내.....108
Directory Service(City)

시외.....105, 100
Directory Service(Suburbs)

국제전화.....001, 008

■ 교통기관

수카르노 하타 공항 안내.....(021)5505307/8/9
Airport Information.....5505179

택시예약(블루버드클럽).....(021)7917 1234
(24시간 접수)

고속도로 정보.....14080
(Toll Jabotabek)

교통사고 Traffic Accidents.....1500669
NTMC (SMS Center).....9119

열차시간안내.....121
WAKAI 121.....081111 2111 121

■ 재인도네시아 한국인관련 주요기관

한국대사관.....(021)2967 2555

영사과.....(021)2967 2580

재인도네시아한인회.....(021)521 2515

한인회 24시간 비상연락.....0812 1960 308

■ 항공사 안내

대한항공(시내).....(021)521 2180
(터미널3).....(021)8082 2198/9

가루다(Call Center).....(021)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시내).....(021)5031 1030
(공항).....(021)8082 2291~2

■ 우편

중앙자카르타 우체국.....(021)384 4188

■ 각종 고장 문의

전기고장 문의.....123

전화고장 문의.....188

수도고장 문의 (Palya Jakarta).....1500223

재인도네시아 지역한인회

번호	지역한인회	직 위	성 명	휴대폰
1	재인도네시아한인회 [0812-1960-308]	회장	박 재 한	0816-825-931
		사무국장	최 인 실	0812-9881-6816
2	발리한인회 [0822 1996 3355]	회장	김 동 수	0811-394-551
		수석총무	김 성 희	0811-398-976
3	반둥한인회 [022) 200-2154]	회장	김 은 수	0812-8811-1733
		사무차장	정 상	0815-4650-3667
4	케프리주 바탐 한인회	회장	서 명 택	0821-7300-0120
		총무	윤 진 만	0857-7825-6241
5	보고르한인회	회장	(공석)	
		총무	임 성 필	0819-707-107
6	메단한인회	회장	안 의 현	0811-6103-332
		총무	박 성 준	0813-7512-6888
7	수까부미한인회	회장	김 흥 기	0811-980-337
		부회장	최 종 섭	0811-114-2163
8	동부자바(수라바야) 한인회 [031) 568-8690]	회장	이 경 윤	0817-321-833
		사무국장	이 대 섭	0812-1767-9007
9	중부자바(스마랑) 한인회 [024) 7648-2020]	회장	채 환	0822-2021-5725
		사무국장	유 성	0811-2777-490
10	족자카르타한인회 [0274) 497-761]	회장	박 현 두	0821-3595-5522
		총무	조 경 민	0821-3342-8818
11	즈빠라한인회	회장	박 호 섭	0812-6666-3338
		사무총장	조 영 성	0813-9032-3355
12	땅그랑반튼한인회	회장	채 만 용	0813-8621-5850
		사무국장	허 미 숙	0821-8166-6137
13	마카사르술라웨시 한인회	회장(권한대행)	한 정 곤	0811-419-200
14	룸복 한인회	회장	박 태 순	0812-378-9841
		총무	이 용 구	0812-3810-4649
15	칼리만탄 한인회	회장	나 성 문	0811-506-4579
		사무총장	윤 상 원	0811-899-0101
16	찌까랑 한인회	회장	안 윤 근	0812-8164-8333
		사무총장	송 영 한	0812-902-6148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주발리분관	361)445	5037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	2967	257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 1900, 2992 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	303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292	130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954	03357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인회 비상연락전화	0812 1960	308
한국국제무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 1170 8882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JKS)	844	4958-61
꿈나무학교	5579	4407
간디국제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학교 (SIS)	7591	4414
(골라빠가딩)	460	8888
영국국제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750	3640
북국제학교 (NJIS)	453	1001
호주국제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학교(DSJ)	537	8080
TAIPEI 국제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찌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 (HIS)	0812 971	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 EMBASSY SCHOOL	390	4137
ACG 국제학교	780	5636
ICSCE	780	7313
익투스크리스천국제학교	7590	8820/50
Sinarmas World Academy(SWA)		
시나르마스 BSD	0812 8689	2897
시나르마스 Thamrin	2993	7234

● 유치원

Hansol Kids	765	6588
Brain School	7179	4787
Bambino (Cipete)	227664497/7203356	
(Patra Kuningan)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꿈나무유치원	5576	7509

● 골프장

BOGOR RAYA	0251)827	1888
CENG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DAMAI INDAH [BSD]	537	0290
DAMAI INDAH [KAPUK]	588	2388
EMERALDA	875	9019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825	7400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EDATON	590	9236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85	319
MODERN	552	9228
PADANG GOLF HALIM	800	5762
PALM HILL	8795	4888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2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1212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IVER SIDE	867	1528
ROYAL JAKARTA	8088	8999
SEDANA	0267)644	730
SEDAYU	5020	8088
SENTUL HIGHLAND	8796	0266
SUVARNA	0811 1586	873
TAKARA	549	6371

●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 은행

IBK인도네시아은행 본점	5790	8888
수출입은행	525	7261
KEB 하나은행 본점	522	0223
우리소다라은행 본점	2995	1915
신한은행	2975	1500

● 가구

조지언 퍼니처	2276	6887
아이니갤러리	581	4690
올댓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로만 인테리어	0811 847	699
그린 가구	0813 1000	8778

● 건설 / 설비 전기

DASOM Indonesia	2940	3042/5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PT. SSA(종합건설)	0812 1956	0188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나무플라워	0812 1314	2681

● 기타

에셀바틱	0813 1038	4812
자카르타 명상센터	0821 7777	9972
땅그랑 명상센터	0821 7777	9973
바람소주	0858 8831	1218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트리비움발리마사지스파 0813 9861 1388

●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2 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1 193 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 미용실/피부관리

Jasmin Hair Salon 1 7280 0019
0811 956 2500
Jasmin Hair Studio 2 7278 0255
Jasmin Hair Studio 3 7278 6530
레르아뷰티샵 0858 5111 1222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자르헤어 7279 6998
센스파 021-2793-3625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법무법인 인도양 527 3077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한국부동산 0811 876 204
대박부동산 08111 555 615

● 병원

관준한의원 739 7854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미르한반병원 0856 9453 7974
Central Clinic 2709 9272
아리따움 치과 /피부과 725 345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Indo Dental (치과외사 정혜정) 0815 1004 2004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 본점 722 2214
무궁화 땅그랑점 558 2214

무궁화 찌까랑점 0851 0075 2214
무궁화 다르마왕사점 723 3214
무궁화 뽀독인다점 7590 5488
무궁화 골라빠가딩점 453 3624
무궁화 찌부부르점 2217 7281
무궁화 수라바야점 031-563 4645
무궁화 스마랑점 024-7640 4783
무궁화 반동점 022-8200 1674
무궁화 꼬따 바루점 022-8680 2262
무궁화 족자점 0274-288 5156
무궁화 발리점 0361-475 2734
무궁화 보고르점 0251-831 5175
무궁화 즈빠라점 0813 2158 5673
무궁화 뽀루잇점 0811 841 4188
무궁화 마카사르점 0811 46 0678
무궁화 빈따로점 0821 2292 9591
무궁화 바뽀점 0812 6664 8989
무궁화 BSD점 0811 1565 988
무궁화 빈판점 0812 6664 8989
무궁화 PIK점 0813 8839 6190
무궁화 반자르마신점 0811 5595 777
무궁화 가딩세르풍점 0813 1630 5312
무궁화 뽀렘방점 0813 9067 0995
무궁화 뽀띠아낙점 0812 5623 112
무궁화 꾸닝안점 0821 1448 0988
무궁화 꼬본주룩점 0813 8610 8800
무궁화 아마르따뿌라점 0815 9977 689
무궁화 롯데에비뉴: 0811 870 386
무궁화 쫄빠까마스점 0818 839 846
무궁화 뽀독뽀낭점 0811 8822 891
무궁화 솔로점 0858 0375 3035
무궁화 메단점 0813 7634 2842
무궁화 발릭바판 0821 4861 0000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K-마트 2277 5526
KOREA MART(수라바야) 031 734 3989

● 식당

가나레스토랑 0811 918 132
가마골 021 7278 7789
가야성 725 7373
가호(MOI) 0811 9966 677
강남 0812 2323 5119
강남스타일 2952 8443
경복궁(찌부부르) 021 3885 3040
대가 8459 2871
대감집 723 3315
마포 7279 2479

woori

우리컨설팅

정직 · 성실 · 전문성의 우리컨설팅이 함께 합니다
투자/법인/인허가/비자/채용/부동산/리서치

Tel : 021-7918-4239 | HP : 0811-146-3700
Email : master@woori-consulting.com
Website : www.woori-consulting.com



서로 도와 함께 가는 우리

www.doowang.net

DOOWANG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바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Graha Surveyor Indonesia, 19th Floor Suite 1901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Tel. (62-21) 2941-0780 (hunting) | Fax. (62-21) 2941-0775
Mobile: 0811-953607 | www.doowang.net
E-mail: lsw@doowang.co.id | leesowang@gmail.com



SMILE KIMBAB
Living World Alam
Sutera, UG floor,
Serpong Utara,
Tangerang Selatan

081292184018



SMILE KIMBAB

명가면옥	0254-849 3571
면의전설	521 0230
명가면옥	2751 0800
미가	0818 85 8026
미스터 박	5140 1142
버까시 서울	8895 7604
베이징	0254-837 0242
보신명가	789 0220
본가	739 6229
삼원가든	2988 9505
설악추어탕1(세노파티점)	722 1852
설악추어탕2(글라빠가딩점)	2937 5435
소래포구	8990 5051
청기와	726 1924
청담가든	0815 7342 5802
청해수산	527 8721
토박	725 1135
한옥(자카르타)	0812 1119 1991
한옥	0254-385 588
감닭	4584 5837
다미	4585 0040
대장금	0816 885 956
마포갈매기	0812 9313 9503
명가면옥	8990 4552
미스터 사시미	4585 3484
미추홀	6583 1472
산정(찌까랑)	2909 3454
(땅그랑)	547 3172
서울	4585 4454
설악추어탕	2937 5435
감미옥	5579 4612
강촌	5579 3681
꼬꼬따리아	0254 394 255
대가야	547 5511
명가면옥	552 2745
산들	5579 5821
상하이	5573 5550
산해진미	5577 8182
서울일식	546 0840
아리수	0254-781 0059
알리사	0254-60 1430
오리랑장어랑	5577 6457
우다움	021 5081 3656
웅대리 (SCBD)	021-5150 7734
(Kelapa Gading MOI)	0812 5723 7627 (WA)
	0811 887 5705 (WA)
우리들	552 4047
조선민물장어	5573 3308
종가레스토랑	551 3273
청기와	0858 1377 3388
수하루	5577 8585

태능갈비	7055 0888
테라스 가든	8493 9321
한마당	5577 6770
산정 까라와치	547 3172
산정 찜까랑	2909 3000
산정 까복	3005 1650
유가네	2221 3392
본가 (족자카르타)	0274 2831440
치맥 (족자카르타)	0274 2831869
예원	021-7212-0533
찬찬	0812-1060-4848
숙달	0821-4007-7256
지원갈비	021-7212-0436
쭈꾸미도사	085775245314
하나	0254-393 2146
하누	021 722 2365
한상 (PIK)	0812 8881 1532
홍대포차	726 4999
홍콩반점	0812-2442-6092

● 신문

한국신문 종합대리점	0812 1004999
한인포스트	4586 9199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신문	5290 0117

● 안경원

옵틱무티아라안경원	5793 7969
-----------	-----------

● 여행사

나래여행	5296 0749
하나족자트라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2950 8903
Inko Batam(바탐)	0778 462 500
사랑투어	2912 5099

●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 의료기

PT. CGM INDONESIA 0811 155 652

● 인터넷

HANASTAR INTERNET 2270 8282
S-Net 7080 7886

● 인테리어

AEGIS BLIND 2943 3876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0811 847 699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그린 인테리어 0813 1000 8778
INMOMATE 7919 2006
올댓테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INPLAN DESIGN 0857 1198 6516

●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샌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021 526 5512
페나스콧 로지스틱스 2902 383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34 119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증권/보험

삼성화재 021 8062 2000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5959
키움증권 5010 5800
KDB 대우증권 515 1140



JASMIN HAIR SALON

Jasmin Hair Salon 1 (한국 미용실)
Darmawangsa Square 1F G46 Jakarta Selatan
영업시간 09:00~19:00 Tlp. 021 7280 0019/0811 956 2500

Jasmin Hair Studio 2 (현지 살롱)
영업시간 09:00~20:00 Tlp. 021 7278 0225

Jasmin Hair Studio 3 (맛사지, 네일 전문점)
영업시간 09:00~20:00 Tlp. 021 7278 6530
Darmawangsa Square GF (Studio 2 G40, Studio 3 G54)

KB손해보험 3199 0247
한화생명 727 88150

● 컨설팅

오롬컨설팅 4585 4910/11
럭키비자 0813 1133 2122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두왕컨설팅 520 7153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비엔시 컨설팅 2278 0470/4013
한국컨설팅 0811 876 204
OK컨설팅 0852 8185 5551

● 인재채용

OSSelnajaya(세르나자야) 572 7214

● 컴퓨터, IT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0811 888 9609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 하숙

경복궁 하숙(리뽀찌까랑) 081314157581
가딩 홈스테이 9661 5877

갈릴리 게스트하우스 0858 1341 3222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0813 1514 9978
나인비즈니스 하숙 9940 5005
더블루 레지던스(찌까랑) 0811 1979 170
블루하우스게스트하우스 08128051 3637
KAKAOTALK ID : theblueid

둥지 하숙 3608 9316
리뽀찌까랑 하숙 0812 1066 7757
레저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모나리자 8990 9570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 1336 1111
쉼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 1780 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위자야 게스트하우스 0815 1024 8888
한발 830 9990
한울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터미널3) 8082 219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031 1030
(공항지점) 8082 2291~2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오롬컨설팅
PT. OROM

KITAS, KITAP, SILVER VISA...

“20년 노하우로 키타스 수속은 한달안으로 종료하겠습니다.”

Dalam satu bulan kami bisa selesai proses KITAS sampai kirim visa kabel



[사무실 이전안내] OUR NEW ADDRESS
Plaza Pasifik Blok.B-2 No.39 Kelapa Gading
Jakarta Utara 14240

visa.orum@gmail.com T: (021) 4585 4910
한국인 Kakao ID: indocity1991 (021) 4585 4911
한국인 indocity1991@gmail.com (021) 4585 4207
(021) 2245 5879

**소고기, 돼지고기와 함께
신선한 참치(볼때기살, 뱃살,
배꼽살)를 출시합니다!**



고기고기
밴드(김군 고기고기),
카톡baguskim5050,
087780948178로
주문하세요

dailyindonesia.co.kr

데일리인도네시아

그대가 있어
따뜻하다...



● 종교 단체

<기독교>

가나안 교회(이병우)	021-8911-7591
	0821-1837-9995
꿈이 있는교회(김현준)	0821 2507 9069
땅그랑 교민교회(김재봉)	0815-1980-5788
사랑의 교회(이명호)	0815-7453-7254
자카르타소망교회(김종성)	021-739-6487
	0813-1104-3000
의의 나무교회(이의덕)	0813-8181-5570
예사랑 교회(박병삼)	0815-1041-9991
인도네시아 열린 교회	
(김용구)	0878-0844-5537
자카르타 늘푸른 교회	
(정형진)	0811-813-7529
자카르타 동부 교회	
(김정우)	0815-1016-5670
자카르타 믿음 교회	
(조광용)	0811-194-8291
자카르타 주님의 교회	
(김완일)	0811-192-7255
자카르타 중앙 교회	
(여성호)	0813-8103-9768
자카르타 한마음교회	
(고형돈)	0812-8983-1433
자카르타 한인 안디옥교회	
(김종근)	021-750-9548
자카르타 한인 연합교회	
(정효진)	0822-9898-0191
찌프라라야 은혜교회	
(고재천)	0811-841-312
짚레곤 늘푸른 교회	
(고재일)	0822-1361-2537
참빛교회(박윤길)	0813-1488-1753
한인열방교회(송광욱)	0811-951-762

반 동

반동 반석 교회	
(박성규)	0813-2039-8285
반동 아름다운 교회	
(박성훈)	0813-2233-0119
반동 한국인 교회	
(이제우)	0811-2233-1515
반동 한빛 교회	
(김정래)	0821-1920-3495
스마랑/족자	
스마랑 한인교회	
(윤성득)	0812-134-1932
족자카르타 사랑의 교회	
(서인석)	0856-4366-6891
족자카르타 우리 교회	
(김성태)	0812-2450-2126
한뜻교회(살라티가) 이기호	
	0298) 311 905
	0812-1538-8515

수라바야

수라바야 한인교회	
(박유신)	0811-3020691
수라바야 선교교회	
(박명수)	0812-3537-3054

메 단&발리

메 단 한인 교회	
(조원동)	0813-6120-1305
발리 한인 교회	
(유호종)	0812-3676-8029
발리 세움 교회	
(정문교)	0821-4764-8665

칼리만탄

발릭파판 한인교회	
(이성현)	62-8115400-863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상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글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5 1158
환전	712 8556

반동 (지역번호 022)

●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아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천주교>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동렌트카 0858-1111-4000
반동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동컴닥터 0821-2222-6000

*발리지역의 문의는 당분간 발리한인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회

●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북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레시오중고 548 5112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527 0150
광주 금호고 0811 176 184
광주 진흥고(박호섭) 0812 6666 3338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김우기) 0812 8763 9907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고(성기운) 0816 114 7364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 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진주가 되겠습니다.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최대 93% 환매보장 ◆ 순금 매입·매각 가능
◆ 순금 가공 가능(회사로고, 행운의 열쇠, 골프공 등 원하시는 형태)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셋트(다이아, 진주)
◆ 최상품 게르마늄 건강팔찌 및 목걸이 판매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62-21-7278-8327 HP. +62-888-110-2022

수출·무역
HP. +62-816-873-176, +62-816-1390-333
E-mail. 3spearl@hanmail.net
+82-10-5509-7751, +82-10-9824-8857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건우) 0815 1902 4123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부산고(조명국) 0811 1046255부
 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서울고(이상열) 0811 916 953
 서울 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성동고(구본욱) 025 161 146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순천 중고(김정욱) 0815 1932 9650
 송문고(김영언) 0816 937 26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양정고(이종환) 0815 1033 1001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유한공고(이선용) 0812 071 210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중동고(김일태) 0812 1922 1462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한성고(박창화) 0816 912 302
 해광고(서동희) 0813 9839 9286
 휘문고(맹중호) 0818 973 986

•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경기대(박호섭) 0812 6666 3338
 경북대(이준혁) 0811 880 401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추교일) 0813 1824 5952
 고려대(안재완) 0812 819 82252
 공군 장교단(정태훈) 0811 9891 403

부경대(서동운) 0813 8568 1122
 동국대(염정운) 0817 681 8599
 동아대(이종헌) 0811 151 7181
 목포해양대(이종재) 08111 975 205
 부산대(류재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이철우) 0812 1177 39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서울시립대(이승수) 0811 869 302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숭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7
 영산대(최재혁) 590 040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이화여대(김미송) 0811 122 056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최일형) 0813 1129 8822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최재광) 0811 968 478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한양대(신송호) 0813 8981 5656
 ROTC(사무국장: 김성일) 0811 805 606
 육군학사장교(김상진) 0812 8779 9035



PT. BOSUNG INDONESIA

PT. BOSUNG INDONESIA



CORRUGATED SHEET
CORRUGATED CARTON BOX
SHOPPING BAG
INNER BOX

<제품안내>

종이 골판지 생산

카톤박스

포장용 박스

종이 쇼핑백

포장재 전문회사 보성인도네시아
고객 만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Jl. Raya Rajeg, Desa Sindangsari, Kecamatan Pasar Kemis Tangerang Banten 15560, Indonesia
E-mail : shopping@bosung.co.id | sales@bosung.co.id Tel. (021) 5935 1001 (hunting)
Fax. (021) 5935 0022 (Shopping bag), (021) 5935 0066 (inner box), (021) 5935 0033 (carton box)



PT. TAEWON INDONESIA

PT. TAEWON INDONESIA



CORRUGATED | CARTON BOX | INNER BOX | OFFSET PRINTING | PULP MOLD

Jl. Raya Industri Selatan 1, Blok LL-6 Kawasan Industri Jababeka II Cikarang Bekasi 17550
E-mail : sales@taewon.co.id Tel. (021) 8948 1234 Fax. (021) 8984 1133/1134



아름다운공동체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암바라와 초 떠나는 시간여행

인도네시아 한인의 자취를 밝히는 역사탐방



- 신청기간: 2024년 7월 8일~12일
- 문의 : 한인회 사무국
021) 521 2515,
0812 1960 308

- 탐방 장소
스마랑, 암바라와 등 태평양전쟁
속 고려독립 청년당의 활동 지역
- 대상 : 인도네시아 한인 학생
10, 11학년
- 일시 : 2024년 8월 27일~28일
(1박 2일)

탐방비는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전액부담

후원:  재외동포청,  스마랑한인회